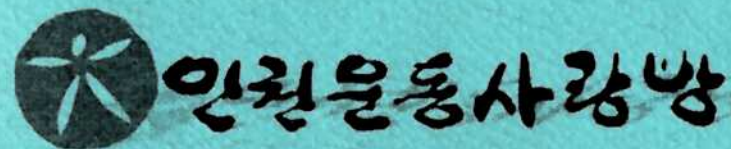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NGO1.38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기념 자료집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동 8-29, 3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web-site: <http://www.sarangbang.or.kr>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NGO1.38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기념 자료집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동 8-29, 3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web-site: <http://www.sarangbang.or.kr>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기념 행사

때 : 2003년 3월 4일 화요일
곳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부 10명의 활동가들에게 듣는 이야기 마당 “인권운동과 나”

(3:00~6:00, 4층 강당)

고상만(인권운동가),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박진(다산인권센터),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이규식(장애인이동권연대), 정귀순(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정율(동성애자인권연대), 정주연(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최정민(평화인권연대)

저녁 식사 (6:00~6:30, 지하식당)

2부 책 『서준식의 생각』 출판기념회 (6:30~7:00, 4층 강당)

3부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10돌 기념식 (7:00~8:00, 4층 강당)

‘사랑방 10년’ 영상물(푸른영상 제작) 상영

격려사

축하 노래공연(민중가수 박창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 인사 및 노래 공연

(*세부 식순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과의 시간

(8:00~8:30, 4층 강당 앞)

자료집 목차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기념 행사 식순	2
자료집 목차	3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궤대를 세운다-인권운동사랑방	4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기억과 기대	7
...곽노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8
...박유민(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10
...김당(오마이뉴스 기자)	12
...엄주현(인권운동사랑방 전 활동가)	14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6
...최형록(진보평론 편집위원, 인권운동연구소 1기 비상임연구원)	18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
...박신혜(인권운동사랑방 청년후원회원모임 ‘꿈꾸는 사람들’ 회원)	22
...최재훈(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24
...김혜준(인권영화제 자문위원,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26
<좌담> 인권운동사랑방 10년, 그리고 내일	29
1. 92년~98년 초	30
<별첨> 인권운동사랑방의 재정 및 조직운영 원칙	69
2. 98년~현재까지	73
3. 사랑방의 내일을 향한 고민과 바람	120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궤도를 세운다

돌아보면 10년, 적지 않은 세월의 길을 걸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2년 하반기 우리의 실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전문화된 새로운 인권운동의 길을 모색하던 당시의 인권운동가들에게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은 어떤 지지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그에 따른 외면 속에서 준비기에 벌써 아직은 때가 이르므로 우리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패배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 해 겨울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하루종일 전화 한 통화도 없던 봉천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무실 한 구석을 쓸쓸히 지키다가 해쳐 모여 해야 한다는 비통한 심정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세상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의 개혁에 취해 일 순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접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인권이론은 접해보지도 못하였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진행했고, 그 해 여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했고, 활동가 1명이 경찰 공안사건에 휘말리는 일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해 9월 7일 당시로는 최첨단 매체인 일간 팩스인권신문을 창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실현하지 못했지만, '인권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그때까지의 인권운동과는 전혀 다른 인권운동을 해 보겠다는 욕심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은 창립되었습니다. 단체 이름도 소박하게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인권운동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면 좋겠다며 이게 좋지 않을까 하며 내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운동을 구속된 정치범의 석방과 후원하는 사업만이 전부라고 인권운동의 원칙과 지향, 역동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도 없이 인권운동을 체제내적인 운동이고 개량적인 운동이라고 매도할 때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해보다는 비난을 앞세울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인권 상황도 많이 변했고, 초창기 할 일 없이 벽만 바라보던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교육이다, 영화제다, 기획사업이다, 감옥사업이다, 연대사업이다 참으로 많은 일에 동분서주하는 사무실로 변했습니다. 격세지감-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쓰느라 꿈꿨다는 기자들이 있고, 한 쪽에서는 사업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있는

반면, 한 쪽에서는 술자리가 벌어지면서 격렬한 토론을 이어가는 풍경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은 곧고 평탄한 대로가 아니었고, 잘 짜여진 사업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인권활동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정적 마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서준식 전 대표와 활동가들의 인권운동에 대한 헌신과 열정, 빛나는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에둘러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직함, 막연하나마 세상의 진보에 인권운동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조직의 위기도 몇 번 넘기면서 이제는 대표도 사무국장도 없는 활동가들이 동등하게 조직을 책임지는 활동가 중심의 조직으로 세워졌습니다. 적지 않은 자원활동가들이 꾸준히 활동에 결합해주었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후원자들이 재정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 이제는 인권운동의 진보이론을 생산해내겠다는 아무진 꿈을 인권운동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의 기대와 사랑을 과분할 정도로 받아왔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일들이 많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왔던 많은 단체들과 열악한 형편에도 연대를 주저하지 않는 활동가의 열정이 있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들어섰고, 사회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소수자들의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외롭게 주장하던 '말들이 세상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10년 전과는 사뭇 다른 이 사회의 현상을 볼 때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이런 현상을 대할 때면 그동안의 고통도, 절망도, 갈등도 이 앞에서 모두 눈 녹듯이 씻겨 내립니다.

그러나 회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장했고, 발전했으나 새로운 인권피해자들은 꾸준히 생겨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함께 일했던 많은 이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보다 치열하게 보다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때로는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10년의 길을 걸어온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먼 길을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게 여길 정도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 잘 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인권운동의 방향을 그리고 우리 사회 성원 모두의 인권이 향상되고 증진되는 일에 우리는 다시 나서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고, 어제까지 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가 이제는 제도정치 일원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끝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으려 합니다.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인권보장체계로부터도 소외 받는 이웃이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간의 소중한 권리들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걸어온 10년의 이 길 위에 다시 '진보적 인권운동'의 궤도를 세웁니다.

인간사회가 진보할 것이라는 믿음이 완전히 미친 헛소리가 아닌 바에야 이에 기여하는 인권운동의 길을 우리는 다시 묵묵히 떠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영광'을 뒤로하고, 보다 겸허하게 우리는 피해자들 곁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내려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하며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진정한 진보의 세상을 인권의 이름으로 건설하는 길에 다시 우리를 헌신하겠습니다. 그 길에 인권운동사랑방이 밑거름이 된다면, 그리고 그 운동에 우리 인권운동사랑방 성원들이 쓰여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을 지켜보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밀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지난 10년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상처만이 남을지도 모를 길일지라도 '영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닦음으로써 사랑을 베풀어주신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되겠습니다.

2003년 3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10돌을 맞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일동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기억과 기대

“더 나은 대안사회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랑방으로 발전하기를”

곽노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구소련의 몰락, 주제별 세계대회 개최를 통한 유엔 역할의 증대, 문민정부의 출범, 재야운동의 분화와 체제내화, 시민사회의 등장 등 국내외의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 진보적 인권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할 때만 해도 그것은 적극적인 해몽이 필요한 하나의 꿈일 따름이었다. 실현가능성을 믿긴 커녕 그 의미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을 하나의 현실로 바꾼 것이 지난 10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역사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하나로서 이것을 어찌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인권운동사랑방의 역사에서 핵심계기가 된 것은 초창기 상임활동가의 구속을 계기로 무모하게 시작한 ‘인권하루소식’의 발간이었다. 창간 후 한 호도 거르지 않고 2000호를 넘기면서 인권하루소식은 인권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의 견인차 노릇을 해왔다. 모든 정보와 자료가 인권하루소식을 중심으로 모였고 사랑방의 모든 활동가들은 인권하루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발로 뛰고 날밤을 새웠다. 기사취재 및 편집과정은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최고의 학교와 워크샵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분노하고 고민하고 비판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을 키운 건 8할이 고집스럽고 집요한 하나의 정신이었다. 인권하루소식, 인권영화제, 인권자료실, 인권교육, 재소자인권, 청소년인권, 연대사업 등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정신을 지키고자 분투했다. 때로는 거친 내부토론과 외부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소박하게 그러나 소중하게 지켜온 인권운동사랑방의 정신은 진보운동의 정신, 자유공동체의 정신, 직접행동의 정신, 밥상공동체의 정신이다.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긴장의 정신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은 독특한 조직문화를 낳았다. 자유공동체로서의 사회주의적 조직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일은 인권운동사랑방의 고유

과제가 아닐까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2년 전 인권운동연구소를 출범시키면서 제2기를 맞은 듯하다. 인권운동연구소를 통해 마련되는 여러 세미나 자리를 통해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적 시민사회의 한 진지이자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연대정신이 충만한 보다 나은 사회의 꿈을 간직하고 크고 작은 실천에 힘쓰는 이들에게 연구소는 또 하나의 해방구이자 배움터로 기능한다. 사랑방과 연구소에 와서도 숨막힌 채 돌아갔다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수사정보기관에 대한 피해망상증 환자들도, 청송감호소 출소자들도, 진보운동의 앞날에 좌절한 이도 모두 쉬어갔다. 본인의 문제를 다 풀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함께 하려는 따듯한 마음을 만났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특징은 더디 가도 함께 가는 조직문화에 있다. 지난 10년간 인권운동사랑방은 때때로 참을 수 없이 느리고 굼뜨지만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 성숙과 심화를 고루 이끌어내며 한결같이 전진해 왔다. 그 결과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제 전문성과 실천력을 어지간히 갖춘 활동가 중심단체로 우뚝 섰다. 나는 향후 인권운동사랑방이 지금의 저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분야에서 문제제기 및 해법제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나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자칫 진보운동의 고집스런 외판점으로 자신의 기능과 의미를 축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누구에게도 활짝 열린 사랑방의 정신과 전통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국내외의 인권피해자, 인권활동가, 인권전문가, 강호제현, 일반시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대등하게 어울리며 더 나은 대안사회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랑방으로 발전하기를 중심으로 기대한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인연, 만남, 그리고...

박유민(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1. 인 연

지긋지긋한 입시 지옥을 뚫고 들어간 캠퍼스에서의 생활은 그저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줄로만 알았다. 틀에 박힌 일상과 나의 삶의 영역을 간섭하려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영원히 “안녕” 이고 싶었던 것이다. 나의 이러한 바램이 너무 소박해서였을까? 나를 둘러싼 세상이 그저 정의롭고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아무 때고 수업에 늦어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는 나를 가로막고, 나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낯날이 고해 바쳐야만 했던 불쾌함.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일상이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만났다.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참견을 하려는 그들에게 맞서 “부당한 불심검문 반대합니다.” “불심검문 반대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렇게 『인권운동사랑방』 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나 보다.

2. 만 남

“이번 기획기사로 서준식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것이 어떨까?”

학교의 과 에서 편집부 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선배는 이렇게 제안했다. 모든 생활이 신기하기만 했던 대학 새내기에게 또 다른 경험은 늘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그 때 부터 피상적으로 알고만 있었던 “서준식”이라는 개인과,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공간에 대하여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는 「레드헌트」로 인하여 서준식 선생님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총학생회나 학보사도 아니고, 정원이 불과 30명이 조금 넘는 과 학생회 편집부에서의 인터뷰를 흔쾌히 응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다. 녹음기를 들

고, 질문 목록을 작성하고, 여러 날을 거쳐 토의를 거듭, 거듭한 끝에 만나본 서준식 선생님과의 사랑방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 온 격식과 절차가 민망하리만큼 친근하게 다가왔다.

국가보안법, 사상 전향, 한총련, 대학사회에서의 진보적 실천 등등..... 거의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준비된 인터뷰’가 끝이 나고 사랑방에서 밥을 먹으면서, 반주도 곁들이면서 예정에 없었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제 갓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에게 진리는 그저 책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 이론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무겁고 어렵게만 보였던 인간에의 사랑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3.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하겠다고 졸라댔다. 그 땐 뭐가 그리도 조바심이 났었는지..... 자원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해 하월곡동에서의 기억들이었다.

빈곤의 문제를 그저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 부재로 탓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사이에 우리의 이웃들은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정도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었다. 인간다운 삶의 기준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경계 지워진 삶. 그 속에서 해 맑게 웃고 우리를 반겨 주었던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비춰야 하는 것인지.....

어쩌면 그것은 내가 아닌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할 숙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난 사랑방에 자꾸만 애정이 가는 것만 같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어려운 담론을 논하고 탁상에서 논쟁에 치우칠 때, 인권운동사랑방은 평범한 우리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소주잔을 기울여 줄 줄 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 진행형으로 계속될 것이다.

“사랑방’의 달라진 조직구성에서 새삼 ‘역사는 진보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김당(오마이뉴스 기자)

<문화일보>에 적(籍)을 두고 있는 도올 김용옥 기자는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 ‘언론은 민족자결 눈떠라’는 심층해부 기사에서 이렇게 일갈(一喝)했다.

“선종의 바이블, <벽암록>에 쓰여있는 다음과 같은 원오 스님의 한 구절이 생각한다 : ‘一機 一境, 一言 一句, 且圖有箇入處, 好肉上瘡, 成成窟.’(마음가짐 한 꼬타리, 대상세계의 한 상황, 말 한마디 한 구절에서 진상의 한 입구를 발견하려고 도모하는 것은, 마치 멀쩡한 고운 피부에 생채기를 내서, 그곳에 등지를 틀고 썩은 굴을 짓는 것과도 같다.)”

나도 도올처럼 시공간을 넘나들며 일갈도 하고 천착(穿鑿)도 하면 좋으련만... 어떡하랴, 선(禪)의 세계에서나 그럴 수 있겠지만 꼼짝없이 이전(泥田)에 발을 딛고서 개 뛰듯이 뛰면서 남들보다 한치 앞이라도 먼저 내다보아야만 하는 것이 나의 천직(賤職)이자 천직(天職)인 것을. 물론 이런 자조(自嘲)가 나의 본심은 아니다. 기자(記者)의 업(業)은 단지 ‘받아쓰기’에 머물거나 ‘말 한마디 한 구절에서 진상의 한 입구를 발견하려고 도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실이라는 구슬을 꿰어 진실의 목걸이’를 만드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92년 유서대필 사건이라는 광풍(狂風)이 몰아치는 가운데 기존의 인권운동 방식에 한계를 느낀 인권운동가 서준식이 새로운 인권단체를 도모하고, 93년에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재의 ‘노무현 브리핑’을 떠올리게 하는 최초의 팩스신문 ‘인권하루소식’을 창간했을 때 내가 발 딛고 선 이전(泥田)은 인권이었고, 특히 그 자신이 장기수였던 서준식이 내게 눈뜨게 해준 ‘남파와 빨치’의 세계였다.

그 시절 ‘사랑방’의 초창기 운영위원으로는 학계에선 박노현·이상영 교수 등이, 법조계에선 유선호, 임종인, 천정배 등 이미 그때부터 노무현과 함께 정치지향성(?)이 강했던 ‘해마루 변호사 3총사’와 백승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히 서준식 대표가 미국에 가 있는 1년 동안 박노현 교수와 백승헌 변호사가 ‘사랑방’ 운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

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기자로는 유일하게 내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다른 운영위원들과는 달리 뽀족한 도움은 주지 못했었다. 다만 서준식 대표와의 ‘친분’을 무기로 당시만 해도 ‘남조선 기자’ 보기를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보듯 했던 장기복역 출소자들을 만나 당시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이었던 ‘남파와 빨치’(남파공작원과 빨치산)를 월간 <말>보다도 먼저 제도권 언론에서 이슈화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다.

커버스토리용으로 이 특집 기사를 쓸 때만 해도 인쇄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시 내가 몸담았던 <시사저널>의 발행인이 이 기사를 읽고서 “공산주의자를 옹호하는 이런 기사를 어떻게 내보느냐”고 화를 내는 바람에 이 기사는 빛을 보지 못했을 뻔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원고가 난도질된 채 실렸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보다는 B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쪽에 관심이 더 많았던 모양이다.

그 무렵 ‘사랑방’과 함께 인권운동의 ‘쌍벽’을 이룬 민가협(민간가협)의 ‘영원한 총무’일 것 같던 남규선은 내게 반드시 ‘인권 기자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국가인권위원회에 가 있다. 물론 지금도 그가 내게 상을 줄 기미는 없지만, ‘세상이 좋아졌다’는 구실로 인권의 이전(泥田)에서 발을 뺀 내게 상을 준다면 그것 또한 괴이한 일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인권운동사랑방’의 성원(成員)들은 스스로의 조직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다.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평등하고 평화로운 인간, 불의한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며,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국가적·국제적 질서 창조를 꿈꾸고 실천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에 소개된 ‘사랑방’의 달라진 조직구성에서 새삼 ‘역사는 진보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사랑방’ 식구(그때는 한술밥을 먹을 때가 많았다)들이 잊지 않고 창립 10년을 기념하는 글을 쓸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내게는 큰 상(賞)이다.

**“출소자들, 양지마을사람들 ...
세련된 말로 표현하진 못해도, 가끔은 엉뚱한 말을 해
도 그들은 확실히 진리를 알고 있었다.”**

엄주현(인권운동사랑방 전 활동가)

95년 4월에 결혼을 하고 남편이 야간 경동시장 과일 도매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지나간 밤을 혼자 지새우고, 낮에는 잠자는 남편에게 놀아달라고 떼를 쓴 지 한참, 모 신문에 인권운동사랑방 공채 공고를 봤고 난 무작정 이력서를 냈다. 물론 이미 사랑방이 새로운 운동의 조직 및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좋은 단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어쨌든 난 같은 해 9월,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랑방 마지막 공채로 입방했다.

갈월동에 위치한 사랑방은 앞으로는 지하철 4호선이 지나고 뒤로는 1호선이 지나서 그런지 지반 자체가 불안했다. 첫 출근 때 계단을 오르면서 불안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더욱 불안감이 엄습했다. 10시까지 출근하라고 해서 갔는데 사무실도 어두컴컴했고 사무실 보다 더 어두운 박래군 씨가 혼자서 맞았다. 아니 맞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책상에 앉아서 나를 보고 씨익 웃었다.

출근 후 나에게 맞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사랑방의 근간이 된 하루소식과 자료실, 교육실 그리고 연대실을 2주간 쉼 없이 돌았다. 당첨은 하루소식, 교육실은 뭣도 모르면서 교육을 한다는 게 웃겼고, 자료실은 사람이 할 것이 못되었다. 사랑방에 나간 지 얼마 안 돼 최은아 씨가 우는 모습을 봤다. 얼마나 힘들면 울기까지 할까. 그때는 내가 좀 순진했다.

난 하루소식 기자가 되었고, 한번은 모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서 취재 차 갔는데, 사람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몇몇 신문사에서 왔었는데, 내가 인권하루소식에서 온 누구라고 소개를 하니 사람들이 가우뚱하면서 재차 물었던 기억이 난다. 난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사랑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만큼

사랑방이 생소했던 때였다.

사람이 할 것이 못된다는 자료실에서 일하게 된 건, 당시 내부 문제로 인해 두 사람이 사랑방을 그만두면서 자료실에 사람이 필요했다. 하루소식과 교육실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었지만 자료실은 사랑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가공하는 일 또한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자료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산처럼 쌓여 있던 자료들... 당시 사랑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낱장 짜리 자료라도 막 버릴 수가 없었다. 분류 체계를 만들고 케이스에 담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때 참 자료를 많이 봤다. 그 때 본 자료들이 나의 삶에 분명히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겨운 건 지겨운 거다. 이게 운동인지, 좀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감옥 인권 사업을 하게 되었다.

감옥 인권 사업을 하면서 전과자들을 참 많이 만났다. 윤치고, 김성덕 씨... 청송보호감호소 출신자들이 자신이 당한 일들을 무협 영화 이야기하듯 말할 때의 그 눈빛과 진지함이 아직도 선하다.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했다. 나는 재미있어 해서 안될 이야기임에도 그들의 입담에 정말 재미있게 들었다. 출소자들을 만나면서, 양지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감옥이 변해야 하는지, 복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 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세련된 말로 표현하진 못해도, 가끔은 엉뚱한 말을 해도 그들은 확실히 진리를 알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5년 가까이 사랑방에 있으면서 깨달았던 믿음이다.

93년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누구나 와서 이야기하고, 공부도 하고, 논의도 하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곳을 만들자고 이름을 붙였다고 들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이 처음 이름을 만들었던 초라하지만 순수했던 사랑방으로 남길 바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교육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운동'이란 말조차 생소할 때 이 땅에 인권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10여년 동안 인권운동의 본보기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필자가 처음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한 것은 용산역 앞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낡고 비좁은 방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참여연대와 함께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였습니다.

신문에 일단 기사로 밖에 취급되지 않은 시국사건이나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고발기사를 '팩스신문'으로 널리 알리고,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알린 것도 인권운동사랑방이었습니다.

필자가 인권운동사랑방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민간단체보고서를 쓰면서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아동권리의 이행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한 한국정부는 3년만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아동인권에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들은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교조, 민변 등 20여개 단체의 실무자들은 인권운동사랑방에 모였고, 필자(당시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참가단체들이 형편에 따라서 5~10만원을 각출하고, 참가자들도 짜장면 값을 내면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민간단체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내졌고,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기

범 교수, 노혜련 교수,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씨가 자비로 제네바까지 갔습니다. 이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아동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위원회를 두고, 아동관련 정보를 집대성하며, 권리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반박보고서를 만들고 국제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은 이후 다른 인권운동에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연륜이 쌓이면서 인권교육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필자가 활동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책을 발간할 때에도 인권운동사랑방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이후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소년과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캠프를 열고, 인권관련 책도 출판하여 인권교육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향후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전문도서관의 설립, 국내외 인권운동가들간의 협력사업에도 더욱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인권운동사랑방 창설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은 ‘건전한 상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형록(진보평론 편집위원, 인권운동연구소 1기 비상임연구원)

‘사법부는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통념은 줄곧 나에게 현실도 바람직한 법치의 이상도 아니다. 이제까지 남한 법치의 체모습은 중국 전국시대 법가의 격언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不知法之義 而正法之數者 雖博臨事必難”(법의 뜻을 알지못하면서 법조문을 끝이곧대로 지키는 사람은 비록 널리 안다하더라도 소송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혼란에 빠질 뿐이다).

이승만 시대의 사사오입(邪詐汚入) 개혁, 박정희 유신시대의 사법과동 등 남한 법치(法恥)의 역사에서 정의의 칼을 든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만 인재-사실은 적지 않은 경우 인재(人災)의 중요한 일부-인 법조인들이라기보다는 ‘유기적 지식인들’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민중’ 세력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법치를 포함하는 민주화운동의 격랑을 10년 간 헤쳐 나왔다. 사랑방이 10년 간 하루도 빠짐없이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해 온 그 지성(至誠)이 인권의 실현에 관심을 지닌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의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지난 10년 간 남한 사회는 민간-군부 파시즘 시대로부터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대로 변천해 왔다. 이런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향후 ‘법의 뜻(정신)’은 무엇일까? ‘부르주아적 야만성’의 표현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시대에 있어서 그것은 현행 헌법을 생각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제 10조) 그리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제 23조 2항)을 가하며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제 119조 2항)라고 할 수 있다.

경쟁과 능률을 물신(物神)화하는 ‘합리성’의 맥락에서 법치를 접근한다면 위에 거론한 ‘법의 뜻’은 그 반민중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실상 meritocracy(‘유능한’ 사람들의 통치)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에는 ‘건전한’ 상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실현 과정에는 ‘앎을 전제로 하는 동의’와 ‘용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랑방이 이제까지처럼 ‘사회적 의제’를 확대-심화시키기 바라며 특히 과학-기술과 인권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에 더욱 열성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다시 20주년에도 가슴 뿌듯함으로 자기성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방 동지들의 건투에 경의를 표한다.

“얼마전 청송감호소를 방문하였는데, 그곳 수감자들이 6년 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명이 구독하는 인권하루소식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돌아가며 읽거나...”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시보활동을 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인권하루소식지를 접하며 가슴 설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하루 종일 얇은 팩스용지가 한 묶음 묶여 있는 몇 달 치 하루소식지를 보며 매일 새로운 도전을 받고, 절판이 된 서준식 선생님의 ‘나의 주장’을 도서관에서 가서 한 장 한 장 복사하여 제본한 날 거짓말 조금 보태 세상을 다 얻은 듯 뿌듯했던 시절, 막연히 감옥인권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신뢰해 준 사무실에 들어가 사랑방을 소개받고,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집필권 침해 사건을 수입하면서, 사랑방의 감옥인권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9년 봄, 사랑방에서 인권활동가, 학생, 의사, 출소자 등이 모여 감옥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미 사랑방에서 1998년 ‘한국감옥의 현실’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감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기에, 그 모임에서 감옥 문제를 유형화하고 관행에 숨어 있는 위법행위를 끄집어 낼 수 있는 시각을 배웠으며 감옥의 이론을 접하기도 전에 재소자들의 편지를 통해 감옥을 체험하게 되었다. 2주일에 한번씩 모였던 그 모임은 현재 내가 활동하고, 활동하게 될 기초를 만들어 주었다. 이 모임이 해체된 후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몇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아쉽게도 여러 사정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지속된 사랑방과의 인연이 벌써 5년이나 되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옥만큼 역사적으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가 공연히 묵인되고, 소위 사회보호라는 미명 하에 격리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을까? 폭압적인 군사정권과 무능력한 정권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우리 사회에서 감옥 문제는 자연스럽게 논의로 되어왔고, 재소자의 지위나 권리 또는 바람직한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나 활동은 부차적이거나 시가지상으로 취급되었다. 위와 같은 논의의 부족이, 현실 그 자체로 인식되면 좋으련만, 논의 자체를 이상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자신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는 재소자를 문제수로 만들고 있다(최근, 서울지방법원은 교도소측이 인권하루소식지의 반입을 불허한 처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론과 운동 모두 시급하게 요구되는데, 감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가 없다보니 사랑방에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때를 쓰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사회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단식 등의 방법을 통해 처절하게 싸우는 재소자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그만한 인적, 물적 기반이 부족한 것 같고, 이론 및 정책 개발자로서의 역할만 요구하기에는 운동적 차원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것 같고...

얼마전 청송감호소를 방문하였는데, 그곳 수감자들이 6년 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명이 구독하는 인권하루소식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돌아가며 읽거나, 입으로 입으로 전달하며 바깥 인권상황을 나눈다고 한다. 인권이란 개념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에게 (단지, 재소자로서의 인권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권을 체험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랑방은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 두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사랑방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그 기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인권적인 삶의 방식’을 꿈꾸며

박신혜(인권운동사랑방 청년후원회원모임 ‘꿈꾸는 사람들’ 회원)

사랑방과 꿈모임의 얘기를 시작하려니 너무 막막하다. 처음에 리던이란 사람들의 소식지를 받았던 것이 기억난다. 너무 어려웠다. 인권, 철학... 한 장을 읽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 다음에 모임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정말 나가기 싫었다. 안 그래도 머리가 아파 오는데 말이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엠티를 가자는 제안을 받고 빼다가 빼다가 억지로 엠티를 가게 되었다. 그게 나랑 꿈모임의 처음 시작이었다.

사실 내 얘기를 줄줄 늘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줄로 믿는다. 내가 당연히 내 얘기로 시작하는 것은 꿈모임 성격을 가진 모임의 시작이 내가 들어갈 무렵이었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자신감에서다. 물론 그 전의 모임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말이다. (~;;;) 가일씨 집에 놀러갔던 그 날의 엠티에서는 무슨 심각한 말이 오고 갔던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 엠티 이후로 우리는 사랑방에서 인정해주지도 않는 후원회원 모임이라는 것을 했던 것 같다. 에세이도 두 편씩 써 와서 밤 열한시가 되도록 열심히 ‘토론’하고 우리 삶의 인권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고민했었다. 워낙 사랑방과는 대학 때부터 안면이 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랑방에 토요일마다 모이는 것에 대해 사랑방 쪽에서 막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재들은 뭐냐는 얘기가 분분했던 것 같다.

우리는 후원회원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인권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권적인 삶의 방식의 하나로 사랑방의 후원과 자원활동이 얘기되었고 각자 알아서 후원을 시작하고 자원활동 영역을 찾아갔다. 매주 토요일 모이는 열성에 사랑방은 차차 우리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우리는 후원회원 모임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사랑방이 만들지 않은 후원회원들이 만든 모임인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모임을 계속해나갔다.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들었다. 토요일 오후마다 모이니 연애들도 안하고 뭐하나 싶은 사람들의 얘기도

말도 들었다. 토요일 오후마다 모이니 연애들도 안하고 뭐하나 싶은 사람들의 얘기도 있었다. 훗훗...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한 때 우리는 연애 모임이라는 일부의 비난(아마 질시)을 받기도 했었고 심지어 외로운 사람들은 꿈모임에 나가보라는 말도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엔 한 커플의 아기가 탄생하기도 했다.

모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었다. 모임의 내용 차원에선 에세이와 사랑방 활동가들과의 간담회, 엠티.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자원활동을 포함하는 후원활동. 단순히 금전적인 후원금을 내는 후원회원이 아니라 사랑방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자원활동을 포함하는 후원회원을 생각했다. 사랑방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후원회원 모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가 다른 형태의 후원활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랑방 활동에 대한 지지를 가지고, 직장인이라는 한계 때문이긴 하지만, 어떤 지속적인 활동보다는 주로 사랑방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자료실 중심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자원활동들이 주를 이루었다. 에세이를 통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인권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창한 주제들이 삶의 작은 생각들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믿음으로 벌써 이년이나 에세이를 나누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사랑방에 처음 오게 된 것은 대학 때 일이었다. 그 때는 별다른 것 없이 그냥 드나들기만 하고 몇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영화제를 치루었던 것 같다. 졸업을 하면서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자연스럽게 사랑방은 신문에서나 발견하는 이름이 되었다. 일년을 직장생활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왠지 두려워졌다. 막연한 답답함과 두려움. 그런 점에서 꿈 모임을, 사랑방을 만나게 된 것은 나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바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품이 좀더 넓어졌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재훈(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벌써 4년 전 일이군요. 99년 9월, 우리 단체가 처음 참여연대에서 독립해 나올 당시에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새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간 서울 시내를 뒤지고 다닌 끝에 우리가 첫 동지를 튼 곳이 바로 지금의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이 위치한 바로 그곳이었지요. 그때는 우리가 3층을 쓰고 사랑방이 4, 5층을 썼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레 아침저녁으로 사랑방 식구들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고, 서로가 친해질 수 있었죠(우리만 친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 굳이 그쪽으로 사무실을 구하게 된 이유에는 인권운동의 역사나 활동력에 있어 국내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사랑방의 내공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크게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단체를 찾아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에 두 개의 단체를 방문할 수 있는 장점도 덤으로 주어졌구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서로가 서로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디다. 활동내용도 다르거니와 그때는 각자가 다른 단체 활동에 신경을 쓰고 도움을 주고받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없었나 봅니다. 막상 우리가 창덕궁 옆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사랑방 식구들을 만날 기회가 자연히 줄어들어 그런 점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 물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려 십여일 동안이나 사랑방 활동가들과(다른 단체 활동가들도 함께였죠) 한 이불 속에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바로 2000년 말 명동성당에서 진행됐던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들 단식투쟁 때였지요. 당시 사랑방 대표였던 서준식 선생님과 상황실장을 맡다가 실려나간 박래군 선배, 이창조, 유해정 활동가의 흔들림 없는 신념과 투쟁의지는 저에게 그 추운 영하의 날씨와 허기를 견딜 수 있게

한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인권단체 연대활동을 통해서도 사랑방 활동가들과 함께 할 기회가 있었지요.

;

그런데, 그 때의 단식투쟁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에서의 연대회의 활동 등을 거치면서 제 마음 속에는 사랑방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해야하나, 바램이라고 해야하나, 하여튼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품이 좀더 넓어졌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권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사랑방이 해온 수많은 역할과 성과, 활동가 개개인의 투철한 신념과 원칙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인권운동에 있어서는 '큰어른'과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하지만, 큰어른에게는 더욱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들이 힘들어 할 때는 다독여 줄 수 있어야하고, 서로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풀어줄 수도 있어야 하며, 때로는 성에 차지 않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사랑방이 해주기를 바랬다면,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다면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가요.

인권운동사랑방의 10년, 정말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희도 6년 후 뿌듯한 마음으로 인권운동사랑방 분들께 “우리도 이제 10년 됐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어깨 한번 두들겨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많은 연대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저의 세상에 대한 의심을
잠재우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김혜준(인권영화제 자문위원,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헌신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부모님의 보살핌, 아내나 남편의 사려 깊은 배려, 그리고 친지의 각별한 도움. 각자 사연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빛을 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빛을 지고 있음을 확인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기적이기 그지없는 생각인 줄 잘 압니다만, 저는 인권운동사랑방 구성원들께 빛을 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뻔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결과 예측이 나오는 순간 저는 아내를 얼싸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일 겁니다. 며칠 후 노 당선자와 한때 쟁쟁한 민주화운동 지도자였던 선배들의 오늘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비교하는 민중당 시절 후배가 보낸 메일을 받고 이런 요지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 분들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자신이 부여잡고 살아온 궂대를 놓아버린 다음부터 모든 것은 달라진다. 훨씬 늦게 시작한 사람이 쟁쟁한 우리 선배들을 제치고 대중의 선택을 받게 된 첫째 요인은 바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키고 있었느냐 아니면 의심하거나 포기했느냐 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저의 세상에 대한 의심을 잠재우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영화계 50대 선배 중에 “난 원칙을 주장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잘 한다. 그것이 제일이고 나의 역할이다. 따라서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책은 맡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들 하지만 이 분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

기 때문에 15년 넘게 영화계 3·40대 세대의 만형 노릇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지요. 특히 중요한 직책을 누군가 맡아야 할 시기가 왔을 때, 더 없이 좋은 후보인 분이 고사 원칙을 굽히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선배 보다 더 분명한 원칙을 지키는 우리 인권운동의 진지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홍기선 감독이 8년여만에 어렵게 만든 영화 <선택>을 보고 평평 울었습니다. 김선명 선생을 비롯한 장기수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전향을 위해 가해진 정신적 학대와 육체적 공격에 굴하지 않았던 비타협적인 삶의 선택을 다룬 영화입니다. 저는 인권운동사랑방 구성원들이 앞으로도 그런 비타협적인 선택을 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쓸 작정이구요.

<좌담>

인권운동사랑방 10년, 그리고 내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들과 자문위원들은 창립 10돌을 맞아
과거 10년의 발자취들을 돌아보는 이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담은 92년부터 98년 초까지, 그리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¹⁾

좌담의 마지막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이
‘인권운동사랑방의 내일’에 대한
저마다의 고민과 바람을
꺼내놓았습니다.

1) 92년부터 98년 초까지 전반기의 좌담은 시간대별 사건을 중심으로 류은숙, 박래군, 서준식, 엄규홍, 최은아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후반기의 좌담은 후반기에 사랑방이 전개한 활동주체별로 김영원, 김정아, 배경내, 범용, 유해정, 이주영, 이창조, 허혜영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10년 그리고 내일 1. (92년~98년 초)

때 : 2003년 2월 15일 오후 3시-9시 30분
곳 : 인권운동사랑방 4층 세미나실
참석자 : 류은숙, 박래군, 서준식, 염규홍(사회), 최은아

1992년

- 1991년 6월 서준식 보안관찰법, 집시법으로 구속
- 12월 서준식 성동구치소에서 출감
- 1992년 1월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설립 추진. 당시 해체를 준비 중이던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수임위원회 삼선교 사무실에 얹혀서 활동을 시작.
- 1992년 여름 서준식, 노태훈, 염규홍, 류은숙 등이 자연스럽게 모여 새로운 인권운동 구상 시작.
- 1992년 8월 <유서사건 총자료집>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자료집) 편찬 작업 시작.
- 10월 서준식이 쓴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를 가지고 인권단체 활동가 간담회 개최
- 11월 전민련의 해체로 삼선교 사무실 폐쇄. 당시 봉천동에 있던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사무실에 얹혀 지내기 시작.
- 12월 '눈물의 망년회'

1992년부터 서준식을 비롯한 몇몇의 활동가들이 인권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다. 이들은 새로운 인권운동을 구상하며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를 토론하고 여러 인권단체와 간담회를 주최하기도 한다. 이 문서를 계기로 인권운동의 방향 찾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다.

염규홍(아래 염): 좌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좌담회에서 포괄할 범위는 인권운동사랑방 태동기부터 1998년 초 서준식 선생의 출감 때까지입니다. 92년 서준식 선생님이 정리하신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에 대해, 또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포섭작전을 펴던 그 때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서준식(아래 서): 포섭작전이라기보다도... 원래 인권운동은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 아니었지요. 17년 감옥살이에서 풀려 나온 후 여러 가지 상황에 밀려서 의리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했던 게 어느새 인권운동이 돼버렸는데, 결정적인 건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이었죠. 91년 경찰에 의한 강경대 타살사건 이후 이어진 '분신정국' 속에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앞장서서 강기훈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때쯤 이미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사람들이 전부 나를 '인권운동가'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인권운동가가 된 셈이죠. 성동구치소에 구속돼 있으면서 '내가 인권운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인권운동의 쇄신을 주장하는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문건의 기본 골격도 성동구치소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 성동구치소에서 언제 나왔죠?

서: 2001년 12월 15일인가... 6개월 있다 나왔어요. 한편으로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를 꾸리면서 새로운 인권운동을 생각하는데, 인권운동가로 살아 가려면 도저히 과거 인권운동과 같은 주먹구구식 운동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활동하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전문화된 운동, 이념적으로도 진보적이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인권운동을 만들지 않으면 나 자신이 인권운동을 못해먹겠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문건을 보면 그 당시까지의 인권단체들의 행태를 많이 까고 있어요. '구멍가게' 같은 거 말예요.

류은숙(아래 류): '구멍가게, 구멍가게 또 구멍가게' 이게 소재목이었어요.

서: 또 자기 단체를 생존케 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는, 어떤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도 후원회원 모집하고, 후원회비 받고, 집세 내고, 자기 활동비 받고... 이런 식의 운동방식 내지 행태, 이게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 종교단체의 인권운동을 비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운동을 자선사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선사업도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혼동하면 인권운동의 개념이 애매해진다는 문제의식 말예요. 이걸 장기수에게 담요 보내기 운동을 두고 했던 소린데... 그리고 70~80년대를 통해서 반독재투쟁의 맥락에서 이뤄진 인권운동은 그러저럭 주먹구구식으로도 열심히 싸워 훌륭한 성과도 낼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지탱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 때만해도 김근태 씨를 비롯해서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했지 않아요? 확실히 소련 동유럽이 무너진 후 세계는 절차적 민주주의 시대로 가는 것 같았고, 과거처럼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라든지 농성 같은 단순하고 즉흥적인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전문성이라는 게 먼저 공부부터 해야 하고, 자료부터 모아야 하고...

염: 자료를 버리는 운동이 아닌 축적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참 '새롭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에는 당시 생소했던 국제연대, 자료를 축적하는 운동, 그리고 사회권에도 눈을 돌리고 있지요.

류: 실속 없이 공대위로 단체명을 나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횡적인 네트워크를 건설하자는 얘기도 나오죠.

염: 그러면 그 때 문제제기 한 것이 10년 동안... 거의..., 성전(聖典)이네요. 지금도 그 문제의식을 크게 넘어선 문제의식은 없잖아요.

서: (웃으며) 성전은 무슨... 지금 생각해보면 유지한 수준이었지요.

염: 그 구상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겠지요?

서: 처음엔 염규홍 씨랑 함께 강기훈 무죄석방운동을 하는 한편 조금씩 생각을 익혔지요. 사람들에게 이런 구상을 절끔절끔 밝히면서 말입니다. 맨 처음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노태훈이었지요. 노태훈은 당시 민가협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두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 때였는데, 자주 삼선교로 놀러 왔었지. 그래서 노태훈한테 이런 구상을 얘기해봤더니 눈빛이 번쩍 하면서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는 거야. 특히 구미가 당긴 이야기는 운동가와 변호사 같은 전문지식인, 그리고 학자의 3자가 삼위일체를 이뤄 운동을 한다는 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80년대엔 거의 숨죽이고 있던 전문지식인이나 학자들이 조금 씩 운동으로 나서기 시작할 때였지요. 노태훈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인간인지라 이게 속된 말로 장사가 된다고 감을 잡은 거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운동형태? 뭐 그런 거 말예요. 그런데 나오는 뭔가 운동에 대한 관점이나 감이 처음부터 달랐던 거 같아. 나는 운동의 세력화나 변창 같은 차원은 아니었는데... 노태훈은 몰라도 나는 처음부터 좀 안 맞는 거 느끼면서 노태훈과 손잡고 이 일을 시작했던 거죠.

류: 처음부터 그 문건은 완성본이 아니었어요. 손으로 써와서 읽고, 몇 번 토론하면서 실지로 배포된 건 선생님이 어떤 잡지에선가 내셨을 때였어요.

서: 아니 잡지 같은 데 낸 일은 없었어. 그리고 내부에서 여러 번 토론한 걸 가지고 내가 결정판을 쓰기로 했던 것 같아. 아마도 노태훈이나 누가 나에게 쓰라고 했을 거야.

류: 아니 그 해(1992년) 10월 달 간담회 때 NCC의 황필규 목사님이 오셔서 "왜 그런 걸 쓰셨어요" 그랬는데요. 황필규 목사는 우리가 준 페이지가 아니라 어디서 읽고 왔다 그러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염: 다른 문건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서: 어디 나가긴 나갔는데 번듯한 상업잡지에 낸 것이 아니라 NCC 인권위원회서 낸 기관지나 그런 뭔가에... 어쨌든 당시 NCC 인권위 사무국장 했던 김경남 목사가 그 대목 때문에 두고두고 서운해했지요.

류: 함께 모여서 문건 읽던 날 아르바이트 지각했잖아요.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

데 늦어서 빨리 가야한다는데 '이것 조금만 더 읽고 가라'고 막 붙잡는 거예요.

염: 간담회 때 다른 활동가들 반응은 어땠어요?

류: 사람들 반응이 너무 썰렁해서 얘기를 그냥 다른 화제로 돌려버렸지요. 간담회 때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민가협이 남규선 총무 같은 경우는 민가협도 있는데 이런 것 굳이 만들어야 하나 그랬고...

염: (회의록을 보며) 당시 유가협에서 일하던 박래군씨도 간담회에 참석했네요. 여기 박래군 씨가 남긴 한마디를 보죠. '답답하다.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난제가 생기면 일일이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한다. 전문가 단체가 만들어져서 부검 같은 일을 지원해주면 인권단체에 힘이 되지 않겠나. 그런 구상이라면 모를까 인권단체가 전문성을 갖춘다는 건 무리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박래군(아래 박): 당시만 해도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같은 구상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운동의 어려움을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수월하게 받으면서 극복하고 싶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전문가가 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처음 시도에서 깨지고, 그 간담회는 10월 24일이었는데 삼선교 전민련 사무실에서는 나가야 했고, 돈은 없고...

류: 삼선교 사무실에서는 한 달밖에 있을 수가 없었죠.

염: 그래서 <우리의 인권운동이 어디로 가야 하나>가 아니고 정말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를 고민하다가 봉천동에 있던 민주법연 사무실에 기어 들어갔던 거였죠.

서: 민주법연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호의적이었지요. 근데 민주법연 사무실에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됐을까?

류: 전민련 사무실 빼기 며칠 전에 선생님이 무슨 토론회인가에 가셨다가 기분 좋아

서 "오늘 어떤 교수를 만났는데 내 구상에 귀를 기울여 주더라. 그 사람이 봉천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와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 고 얘기하셨어요.

서: 토론회 자리는 아닐 거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방송통신대 찾아갔던 애긴가봐. '어떤 교수는 강경선 교수나 광노현 교수였던 것 같고...'

염: '우린 갈 데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셨거든요. 어쨌든 덕분에 그 해 11월부터 봉천동 시대가 열리는 거죠. 사무실이 2층이었는데 봉천동의 기운 자체가 참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류: 서울 시내라고 볼 수 없는 곳이죠. 철거를 앞둔 동네인데다 으시시한 골목 안쪽에 자리잡고 있었고, 사무실은 2층이었지만 계단 맞은 편엔 십중팔구 수상한 장사를 했을 후진 다방, 이름도 '골목다방'이었지요. 밤이 되면 동네 깡패들이 술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골목을 지나갔지 뭐예요. 그 때 우리는 하는 일도 없었어. 봉천동 와서는 정말 암울했던 게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염: 왜냐면 우리 구상을 얘기해봐야 다른 단체에서는 코방귀나 끼고 상대도 안 해주고.

류: 학교 졸업하고 일단은 출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나와.

염: 난 어머니 돌아가신 직후라 집에 있는 것도 거북하고 그래서 사무실에 비교적 나온 셈이었어요.

류: 출근해서 청소부터 하면 하루 종일 하릴없이 앉아만 있는 거야. 전화가 하루에 한 통도 안 울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걸까? 이놈의 단체 정말 만들긴 만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잖아.

염: 덮어놓고 서준식 믿고 있어도 되냐? 인권운동의 원대한 구상을 한답시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헉사나 하고 있고. (모두 웃음)

류: 사업 안 하나까 돈이 안 들어가지만 석유라도 때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 그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때 우리가 결의했던 게 서 선생님에게만 부담주지 말고 우리 모두 조금씩 돈 내고 운영비로 쓰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각자 20만원씩 모으기로 해서, 그걸로 석유, 반찬 사고 밥 먹고 했지요. 그러면서 이 짓을 때려 치워야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 그런 상태로 한달 갔거든. 그러다 12월 20일쯤에 연말이라고 망년회 하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된 차규근이랑 박정우가 왔었어요. 동우전문대의 고상만 하고 분신으로 화상 입은 정연석인가도 왔었죠. 우리 사무실 찾은 사람이란 고작 그 정도였어요.

류: 내가 장어구이도 사오고 먹는 거 많이 차렸어요. 그러고서 연말송년회를 하는데 그 날 내가 열 받기 시작한 건 선생님 말 때문이었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 구상이 시기상조라 안 될 거 같으니까 우리 몇 년간 헤어져서 각개약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모이자. 다른 단체에서 우선 경력 쌓고 운동 익힌 다음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말이 다시 모이자지 이제 끝났다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염: 8월에 모여서 4개월 밖에 안 됐는 데 그만 두자?

류: 그럴 수 없다. 돈 없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벌어들여야 된다고 했지요.

염: 그렇지요. 심보선이가 막노동이라도 하겠다고 했었지요. 바로 그쯤 해서 은숙 씨의 그 유명한 '니가 뭔데'가 나왔지요. 다들 속상해서 어지간히 소주를 목구멍에 퍼부어 대다가...

류: 선생님 그 말 취소하라고 막 대드는데 옆에서 차규근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은숙 씨! 세상은 냉정합니다" 어찌구 그런 식으로 끼어들잖아요. 화가 나서 "새끼야! 니가 뭔데!" (모두 웃음) 이게 바로 '눈물의 망년회'였죠.

서: 내가 진보적 인권운동론을 꺼내긴 꺼냈는데 사실은 정말 가능할까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회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거 보니까

나 때문에 결국 이 애들이 금쪽 같은 청춘을 망쳐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겁이 나더라고. 나는 그 때 차규근, 박정우, 그리고 민주법연의 좋은 후배들을 우리 일에 합류시키려는 천진스럽고도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었지요. 그 초라한 처지에서 거대한 구상은 만들어놓았으니 자신이 없을 수밖에...

류: '눈물의 망년회' 끝나고 나는 정말 때려치울 생각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선물 사들고 선생님에게 인사하러 찾아갔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선생님은 안 계시고 가족만 있더라구요. 나는 정말 사람들이 각개약진 하기 위해 헤어지는 줄 알고 한참 동안을 사무실에 안 나갔지요. '이제 끝났다. 그냥 놀면 뭐하냐' 하는 심정으로 대학원에 가기로 마음먹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남동생이 서준식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사무실이 이사 갔다고 낙원동으로 출근하라잖아요. (웃음)

염: 낙원동 시대의 막이 열리는군요.

1993년

- 1993년 1월 낙원동으로 이사
- 2월 말 '인권운동사랑방' 이라고 단체 이름 지음
-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6월 비엔나세계인권회의의 참가
- 7월 노태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 8월 인권하루소식 준비호 발행
- 9월 인권하루소식 창간호 발행
- 10월 용산으로 이사
- 11월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알카티리 씨 방한
- 12월 국제연대팀(이대훈, 이성훈, 장소영, 김은영)과 결합

1993년 1월 인권운동사랑방은 낙원동으로 이사한다. 암울하기만 했던 봉천동 시절에 비해 낙원동에서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조금씩 사업들이 꾸러지기 시작한다. 2월 말에 단체이름을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짓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염: 은아 씨는 언제쯤 인권운동사랑방과 만나게 되었죠?

최은아(아래 최): 제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일하던 93년 3월쯤 처음으로 사랑방과 인연을 맺게 됐죠. 사랑방에서 전문가 초청 인권활동가 교육이란 걸 했는데, 교육받으러 낙원동까지 갔었어요. 사랑방은 그 때 교육받으러 오는 활동가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선생님은 교육받으러 오는 활동가들에게 손수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주셨 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죠. 은숙 언니랑 같이 낙원동 시장 가서 먹을 것도 사고, 길거 리 점쟁이한테서 점도 보던 생각이 나네요.

염: 지금 생각해도 선생님의 카레라이스는 일품이었어요. 그거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 먹는 게 화기에애하잖아요. 벽을 없애고.

류: 탑골공원 주변 포장마차 점집에서 점 한 번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혼자 가기가 쪽팔려서 못 가고 있었는데 장보러 나간 김에 은아 더러 같이 가보자고 꼬셨지요. 그 때 점쟁이 왈, '입으로 먹고산다. 인생에 남자는 없고,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쓰고 나면 또 쓸 돈이 생긴다.' (모두 웃음). 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낙원동 오피스텔 우리 사무실 맞은편 방에 있던 점쟁이가 생각나요. 우린 복도에 나가서 담배 피우곤 했는데 그 점쟁이가 복도에 나와 선생님 관상을 봐준다고 한참을 보더니 하는 말이 '앞으로 가도 막혔고 뒤로 가도 막혔다.' (모두 웃음) 그런데 선생님이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지요. '와! 저 사람 어떻게 내 속을 저렇게 잘 맞출까!' (모두 웃음) 가끔 버스 타면 지금도 그 사람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귀가 엄청 커. 이따만해.

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강좌였 죠. 공부가 유익하기도 했지만 카레라이스가 너무 맛있어서 세미나보단 식전 행사가 진 짜 좋았죠.

염: 1월에 낙원동 와서 10월정도 용산으로 이사 갔었죠? 10평 정도의 게딱지만한 오

피스텔이었는데 9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 그래요. 민주법연은 서울대 법대가 주축이라 봉천동이 편리한 면도 있었겠지만 회원들이 자꾸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니까 그게 별로 의미 없는 게 되고 있 었죠. 그래서 시내 중심 쪽으로 옮기자, 이렇게 되고 내가 책임지고 새 사무실을 구하 기로 됐었지요. 마구 싸돌아다니면서 복덕방마다 들어가 보는데, 입주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딱 부러진 반값으로 나온 물건이 있더라구요. 9개월 밖에 못 있다는 조건과 너무 좁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너무 싸서 얼른 계약을 했지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염: 그 때 이런 이야기했어. 봉천동은 하늘을 섬기는 곳이다, 낙원동은 낙원세상, 그 러니까 다음엔 안국동으로 가야겠다. 왜냐면 안국동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동네니까.

서: 그래도 낙원동 가서는 활기도 띠었고 일 좀 했지요?

염: 낙원 오피스텔 가니까 따뜻하고 밤새 일하기가 훨씬 좋았어요.

류: 낙원동에는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었지요. 비엔나 세계대회 준비 때문에 전문가들 이 자주 오고 자료집도 편집하고.

염: 봉천동에서는 별로 모임이 없던 민주법연도 이상하게 낙원동에서는 모임이 많았 어요.

서: 그때 우리는 이대훈, 이성훈, 장소영, 전대진 등 국제연대운동에 열정을 태우던 소중한 사람들도 알게 됐고... 확실히 사랑방 도약의 디딤돌이었던 것 같아, 낙원동 시절은.

염: 낙원동 시절 사랑방 멤버는 처음 여섯 명이었지요. 선생님, 이숙현, 노태훈, 은숙 이, 김정희 그리고 나, 이렇게요. 태훈이는 비엔나인권대회 준비 때문에 왔다 갔다 했고, 나는 유서사건 총자료집 만드는데 집중했고, 이숙현 씨는 결혼하고 실수로(?) 얘기가 생겨 한달 만에 그만둬야 했으니 결국 사람은 많았지만 사랑방 일은 선생님과 보선이 가 거의 다 한 셈이었지요.

염: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경위를 이야기해볼까요?

서: 우리가 모임을 만든 후에도 한참 동안 이름이 없었지요.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자주 썼던 말로 우리는 인권단체들을 수평적으로 관통하면서 전문성과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단위'였고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에도 나타나 있듯이 다른 인권단체들과 경합관계에 서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내세우고 단체로서 깃발을 올리는 데 대한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체 이기주의를 경계했다고나 할까...

염: 네. 이름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대외적으로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단체 이름을 정해야 할 때가 왔지요. 인권활동가를 교육하기 위한 전문가 공개강좌를 여는데, 이러이러한 강좌를 할 테니 여기로 와라. 그런 공고를 내는데 주최가 누구냐를 밝히지 않는다는 게 참 이상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서준식과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는 식으로 언제까지나 버틸 수 없는 건 분명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름을 만들자. 이렇게 됐고 이름 짓는데 10분도 안 걸렸었지요 아마...

서: 창립취지가 우리만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 갖고 여러 단체에 나눠준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와서 놀라는 취지에서 '사랑방'으로 하는 의견이 나왔고.

류: 처음엔 '사랑방'만 했다가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에 '인권사랑방'이라고 했다가 그것만으로는 약하다 도대체 어떤 인권이나.

서: 운동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염: 처음엔 '인권사랑방' 했다가 '인권' 하고 '사랑방' 사이에 브이표(V) 하고 여기서 '운동' 이렇게 넣어서, 인권운동사랑방이라고 이름 정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신나게 팩스 날렸어요. 우리 '인권운동사랑방' 이라고 이름지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방 초기 활동을 생각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물 1호 레이저 프린터였어요.

서: 그렇지요. 거금 150만원인가 투자해서... 순전히 강기훈 유서사건 총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샀는데 당시만 해도 레이저 프린터 갖고 있는 단체는 거의 없었어요. 유서사건 총자료집 2천7백페이지 짜리 완성만 되면 그걸 판매하고 본전은 뽑을 수' 있다는 배짱이었던 거지요. 정품이라고 속아서 꺾데기만 큐닉스 제품을 샀는데, 참 오랫동안 버티어 주었어요.

염: 그게 나중에 인권하루소식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윤전기'가 되고 용산, 갈월동 시절을 거쳐 명륜동에 와서까지 잘도 돌아가 주었지요. 참 효자였지요.

류: 굉장히 무거웠지요. 용산으로 이사갈 때 그 레이저 프린터 옮기다가 보선이 형이 그걸 안고서 발을 헛디딘 거야. 그런데 뒤로 사람이 자빠질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끝까지 그 프린터 안 놓치고 조금 할퀴고 다치기만 했지요. 만약 그거 안고 그대로 넘어졌으면 대형사고 났을 텐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선이 형 걱정은 안 하고 프린터 걱정만 했잖아요. 모두 보선이 형 보고 '야, 프린터는 괜찮나? 너 프린터 놓쳤으면 죽었을 거야' 그랬지요. (웃음)

박: 그런데 나중에 갈월동으로 옮길 때는 내가 떨어뜨렸지요. (웃음).

염: <유서사건 총자료집>을 편집해야 하잖아요? 복사기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복사기를 중고로 렌탈한다고 해서 몇 곳을 다녔는지 몰라. 그것도 한편의 '드라마'예요. 렌탈 집 아저씨랑 되게 친해지기도 했지요. 그때는 한 달에 3천장 하면 기본이고 복사량이 거기서 더 나가면 얼마 하는 식으로 임대했어요.

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서사건 자료집 작업을 붙들고 돈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 지, 참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봄날 창가 컴퓨터 앞에 앉은 염규홍이가 '선생님, 어습푸레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는데 와, 그 감격! 눈물이 북받치려고 하는 거 있지요. 개인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한 서러움 같은 것 한꺼번에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 것 하나만 해도 낙원동 방세가 아깝지 않았지요. 그리고 종로성당 빌려서 '유서사건 총자료집 발간 기념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 준 게 너무 기뻐요.

염: 날마다 밤새다시피 하면서 만들었어요. 유서사건 자료집은 돈도 많이 들었지만 1

질 10만원씩에 판매해서 사랑방 초기 재정에 도움이 됐고요.

서: 그래도 경비 빼면 우리 임금 정도가 사랑방 초기 유지비로 돌아간 거죠. 그 고생 하면서 자료집을 만들어도 우린 활동비 없이 일했잖아요. 어쨌든 얼마 동안 유서사건 자료집을 두고두고 먹고살았지요.

류: 아무튼 그 일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이 일을 하고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살아 있다는 느낌 말예요.

염: 박래균 씨는 당시 유가협 사무국장이었는데 사랑방에 대해 어떤 기억이 있나요?

박: 그 때 특별한 기억은 별로 없지만... 나도 사랑방 공개강좌 할 때 드나들면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는 상황이 된 거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고... 유가협에 있으면서 갑갑하잖아요. 누구랑 인권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만 해도 NL식의 통일전선운동이라는 시각으로 유가협 활동과 의문사나 고문 문제를 생각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93년에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다녀오고 나서는 '인권'으로 풀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 전엔 인권이란 관점은 확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염: 최은아 씨는 그 무렵에 뭘 했었나요?

최: 저는 그 때 천주교인권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비엔나인권대회는 참여하지 않았고 인권운동사랑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공개강좌에 몇 번 참석했어요. 인권활동가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유익했어요. 카레라이스도 맛있었고요. (웃음) 활동가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자극을 주셨어요.

서: 그 때 어떤 사람들이 강의하러 사랑방에 왔었지? 박원순, 이석태, 조성우? 그리고 그 때 드나들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요?

염: 옛날 빨치산 할머니들하고 임방규 선생님도 오셨던 것 같고 권낙기 선생님. 그리고 젊은 활동가들 중에도 소식 듣고 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전대진, 장소영... 많

진 않았지만 정겨웠어요.

1993년 7월 13일 오전 6시 노태훈 씨가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된다. 공안세력은 출소장기 수와 일본의 조총련을 연계한 큰 그림의 간첩단 사건을 구상하며 노태훈, 권낙기 씨 등을 연행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로 기소한다.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은 사건 속보를 팩스로 발빠르게 전달하여 적절하게 대응한다. 오래 전부터 인권뉴스레터를 구상하던 인권운동사랑방은 노태훈 사건 속보를 계기로 '팩스'라는 매체에 주목한다. '문민'이라는 허울을 날카롭게 고발하기 시작한 인권하루소식은 8월 4일 준비1호를 시작으로 그 해 9월 7일 창간된다. 창간 다음날 안기부에 의해 조작된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이 터지는 등 인권하루소식에는 기사들이 넘쳐나는데..... 기사가 없으면 " '오늘은 평화의 날입니다' 라고 보내면 되지" 라던 편집인의 소망은 정말 소망으로 끝났다.

염: 인권하루소식을 만들게 된 전사와 그리고 노태훈 씨가 연행되던 그 날 아침 상황부터 설명해주세요.

서: 팩스로 배달되는 '하루소식'이라는 형태는 생각 안 했었지만 인권 및 인권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뉴스레터는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 배경 중 하나는 당시 한겨레신문이 상업적 고려 때문에 대기업 광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문화·오락면 같은 것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신문 이미지를 어둡게 하는 기사가 자꾸만 지면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걸 들 수 있겠지요. 이를테면 강제철거라든지 국가보안법사건 같은 것들 말예요. 한겨레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인권 뉴스레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까닭이죠. 문제는 그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배달하느냐였지요. 별 대책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일어난 노태훈 구속사건이 막혀 있던 길을 터준 셈이예요. 엉뚱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간 노태훈 씨의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국내외 여기저기에 정신없이 팩스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팩스라는 매체 전달수단을 발견한 거지요. 그 날 노태훈은 저녁에 들어왔어요. 낮에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자겠다고 했지요.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창문 열어놓고 테이블 위에 벌렁 누워서 자는 거였어요.

염: 노태훈 개가 원래 깔끔 좀 떨잖아요. 요란스럽게 이빨 닳고 수염 깎고 사워하고 나서는 '어, 시원하다.' 어찌구 하면서 팬티 하나 걸친 채 테이블 위에 올라가 발라당 누운 거야. 나는 노태훈 옆에 눕고 선생님은 쇼파에 눕고...

서: 우리는 일하다 지쳐 쓰러지면 언제나 그런 식으로 자곤 했는데, 그 날도 그렇게 자다가 동틀 무렵에 뭔가 김새가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마침 활짝 열린 문에서 어떤 조폭 같이 생긴 두 놈이 들어서고 있었지요. 그리고 '노태훈이가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잠에 취해서 얼떨떨해 있는데 '이 새끼지' 하더니 느닷없이 노태훈에게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겠어? 노태훈이 '어, 어, 왜 이래!' 하면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고 그냥 끌려갔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도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단체 만들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공간기관에서 우리를 철저히 마크하고 있었던 거야. 경찰에서 나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나가는 쓰레기만 따로 가져갔었다고 누가 얘기해줬는지? 건물 청소하는 아줌마였지, 아냐?

염: 그랬죠. 우린 그런 거 전혀 몰랐지요.

서: 노태훈 통장에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였어요. 수상하기도 하지. 하지만 노태훈은 민가협 시절에 일본에서 개최된 우리 장기수 서화전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판매금을 자기 통장에 넣었다 공금통장에 넣었다 했거든. 그리고 비엔나 세계대회 때도 한국 NGO 네트워크의 공금을 관리했을 걸요? 나중에 노태훈이 이야기하는데, 남영동에서 취조를 받는데 수사관이 두께 10센티 정도 되는 서류 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길래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과거 5-6년간의 노태훈의 전화 통화를 도청한 기록이라고 대답하더라...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염: 선생님이 먼저 깰고 나하고 노태훈은 '일어나, 일어나' 하는 소리에 잠이 깰지요. 노태훈은 이쪽에 머리를 두고, 나는 저쪽에 머리를 두고 자다가 놀라서 일어나는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수갑이 채워졌지요. 깜짝 놀랐어. 노태훈이 불멘소리로 '웃은 입어얄 거 아냐' 했지만 웃도 제대로 못 입고 끌려갔었지요. 선생님이 '야, 너희들 뭐야!' 하면서 옥신각신 싸우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나는 짹짹 계단으로 내려가서 차량 번호를 적었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시사저널 김당 기자에게 부탁해서 차적 조회를 했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심보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심보선이 말하기를 지금 경찰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 경찰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이름이 아무개라고 알려 준 거지요.

류: 잡혀가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걸 물어봤지요?

염: 심보선을 체포하러 간 형사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보선이 좀 우직한 데가 있잖아. 경찰이 와서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가냐. 진행되는 건 좋은데 당신들이 진짜 형산지 못 믿으니까 명함이라도 달라.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서 받은 명함을 보면서 나에게 전화를 했던 건데, 그 형사는 자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 사무실에 전화하는 걸로 알았겠지? 보선은 그 경황에도 화장실로 가서 세수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학생운동 할 때 읽었던 문건 같은 거 모두 화장실에 숨겼다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전화 번호로 전화해서 그 아무개라는 경찰을 찾으니까 전화통 저쪽에서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안 계시지. 한창 심보선을 연행하고 있는데 계실 리가 있나! 그 전화로 노태훈이랑 심보선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다는 걸 알았지요. 노태훈이가 6시 30분에 연행됐는데 7시에 벌써 어디로 연행되었는지 파악했던 거야. 그때 노태훈 엄마한테서 경찰이 가택수색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7시 10분이었죠. 또 장기수 선생님들 가족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이거 이상하다. 몇 군데 체크해보자 했는데 광주에서 한 분, 그리고 권낙기 선생님도 연행됐더라고요. 이상하다. 경찰이 뭔가 엮으려 한다. 그래서 속보 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속보를 만들었지요. 7시 50분 경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팩스번호로 무조건 보냈지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30분 후에 2차 속보 보내고, 그 뒤로는 시시각각 속보를 만들고 결국 그 날 오전 중에 5차 속보까지 나갔었지요. 자꾸만 속보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더라구.

류: 해외에도 많이 보냈지요.

염: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노태훈을 민가협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왔었고, 노태훈과 서로 아는 일본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었지요. 오후 6시인가 우리는 남영동으로 면회투쟁을 가면서 그 면회투쟁 간다는 것까지도 속보로 내보냈어요. 그 날 아마도 13차쯤까지 속보가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음날부터는 우리가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자꾸만 물어 오거든요. 24

시간 후 노태훈이 잠시 석방됐을 때도 속보, 그 석방 후에 경찰이 덕수합동법률사무소로 찾아간 노태훈을 다시 잡아간 것도 속보..., 하여간 계속 속보, 속보였어요. 어쩌면 경찰 쪽이 강압수사 같은 걸로 사건을 짜 맞추는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속보 공세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물결치면서 사실상 그런 강압수사가 상당히 어렵게 됐을 거예요.

박: 노태훈 사건에 대해서 당시 추측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평소 손대기 어려웠던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노태훈을 중심으로 한 큰 그림에 넣고 사건을 엮는다. 비엔나 갔다 온 사람들은 대개 이 그림에 들어가겠지요.

서: 재료는 괜찮네. 노태훈이 비엔나 갔다가 부다페스트에도 갔겠다. 독일도 마구 돌아다녔겠다.

염: 노태훈 사건에 팩스 속보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무실에 정보가 모이는 거예요. 큰 교훈이었지요. 인권사건은 뭐니뭐니 해도 속보성이 생명이니까 이런 성과를 일상적인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내는 팩스 인권신문이 좋다. 우리는 이런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했지요. 매일 내되 실을 내용 없으면 '오늘은 평화의 날입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된다는 게 초기 생각이었어요. <인권하루소식>은 이렇게 탄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출발이 '축쇄'가 될 줄은 몰랐지요. 급한 소식이 없어도 결국은 면을 채우기 위해 아득바득 하게 되더라구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류: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 간다고 했어. 아침에 사무실 가면 규홍이 형이랑 보선이형 늘 뻗어 있곤 했지요.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보내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팩스 동보기능이라는 편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5백 여 통을 일일이 번호 누르면서 보냈으니...

서: 팩스나 열려있으면 좋은데 안 열려있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전화를 팩스로 바꿔놓지 않은 놈들이 어떻게나 미웠던지... 동보기능의 존재를 알았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

염: 처음 준비 1호 보낼 때는 5십 몇 군데였는데. 신문 두 페이지를 세시간에 걸쳐

보냈으니 말예요. 하루는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전화요금 좀 할인 안 해주나 해서 한국 통신에 전화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 말이 동보팩스라는 게 있다는 거야. 할인도 되고 한꺼번에 999군데나 보낼 수 있다는 거야. 상대방이 팩스를 안 받으면 7-8번이나 자동으로 체크해 준다는 거구. 게다가 12시부터 4시 사이에 보내면 가격도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

류: 그래도 새벽에 전화벨 울린다고 항의 많이 받았잖아요. 새벽에 팩스가 들어오길래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팩스 봤더니 <하루소식>이더라고 말예요. 동보는 알았지만 예약은 몰라서 새벽 4시가 넘어서 요금이 비싸지기 전에 무조건 팩스 보냈으니...

염: <하루소식> 편집장 키우는 것도 과격적이었지요. 편집을 나 혼자 밖에 못하는데 하나 하나 가르치자니 심보선이가 어느 천년에 편집을 익히겠어요? 예라, 사자새끼 키우듯이 키워보자. 사자는 자기 새끼를 씹씩하게 키우기 위해 일부러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는 말은 선생님이 늘 퍼시던 지론이었지 않아요.

류: 보선이 형은 타자도 제대로 못 쳤어요.

염: 당시 난 정식으로 전국연합 인권위 상근 간사였어요. 서 선생님은 전국연합 인권위원장이고요. 그런데 낮에는 전국연합에서 일하고 밤에는 <하루소식> 편집해야 하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심보선이를 편집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밤에...

최: 쇠사슬로 묶었어요? (모두 웃음)

서: 무슨 소리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냐. (모두 웃음)

염: 서 선생님하고 둘이 술 마시러 나갔지요. 새벽 한시 정도에 들어갔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술이 취해 못 도와 주겠는 거예요. 심보선이 애타는 표정으로 나를 부르려다가 말도 못하고, 내가 '잘 되냐?' 했더니 '네, 뭐...' 그러더니 계속 일을 하더라구요. 아침 10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아 이놈이 그 때까지도 계속 컴퓨터 앞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건 카피 기능을 배웠나봐. 카피해 놓으면 어디로 가버리고, 텍스트

박스 넘치면 위치 못 잡는 거예요. 이거 하나 옮기느라고 몇 시간을 고민하는 거야.

류: 결국 다시 워드 쳐서 인쇄해서 오려붙였지요.

염: 보낼 땐 그렇게 해서 보낸 거고, 이 편집본은 나중에 내가 다시 편집해놓은 거지요. 한 사나흘 그렇게 내버려둔 다음에 이거는 이 기능이고 저거는 저 기능이고 하고 가르쳐줬지요. 내가 생각해도 심했지. 이렇게 해서 결국 15일도 안 돼서 보선이에게 편집장을 맡길 수가 있게 됐었지요.

류: 타자도 못 치던 인간이 15일만에 편집장이 된 거죠.

염: 초기 하루소식은 일단 기록이라도 남겨두자는 정신이었지요. 무슨 단체 발족선언문 같은 걸 전문 다 실어주었지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좋대요. 성명서 따위가 남아 있는 데가 없는데 <하루소식> 지난 호를 보니까 웬만한 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인권이고 인권운동이냐를 판단하는 것도 고약했지만 일단 인권·사회 단체에서 하는 건 다 실어준다는 거였죠. 단체에서 실어달라고 하면...

서: 그 때가 운동의 침체기, 암흑기였지요. 힘없는 조그만 운동들이 자기 이슈를 어떻게든 <한겨레신문>에 내보려고 노력하다 안 되면 <인권하루소식>에 실어달라고 제보해오곤 했어요. 돈 없는 <한겨레신문>의 큰 메리트 중 하나가 운동권 관련 정보를 다른 신문에 비해서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초기 <한겨레>의 특종기사들은 이런 게 많았지요. 그런데 <한겨레>가 스스로 상업적으로 선회하면서 이런 정보의 상당부분이 <하루소식>의 몫이 된 거예요.

염: 창간하면서 인권하루소식이 진가를 발휘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9월 7일날 창간했는데 9월 8일 김삼석 씨를 연행해 간 거야. 하루소식에는 9일날 나갔지요.

박: 추석 전날이었을 거예요.

염: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 씨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사회단체니까 우리가 <하루소식>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윤미향

씨는 남편이 잡혀가서 너무 막막했는데 <하루소식>이 생각나서 우리에게 전화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단 면회신청을 해라. 그리고 안기부 안에서 삼석 씨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는 <하루소식> 기자 노릇도 하지만 인권운동가가 본업이니까. 그런데 같이 잡혀간 삼석 씨 동생 은주 씨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건을) 전달받아서 잡혔는데 (문건을) 전달해준 사람은 안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프락치 공작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서 관련 단체가 어딘가를 추적해 보니까 남누리영상이요. 거기 전화해서 전화 받은 여자에게 무조건 오라고 했지요. 그 여자가 왔는데 이게 프락치 공작이 아니냐고 다그치니까 그들이 사시나무 떨 듯 떠는 거야. 필담으로 말하기를 남누리영상 대표인 배인오라는 사람 틀림없는 프락치다. 같이 온 친구는 옆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결국 나중에 배인오가 프락치였다는 양심선언도 했고... 대응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김삼석 씨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4년형인가를 받았지요. '남매간첩단'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4년 밖에 안 받은 건 김삼석 씨에게도 행운, 우리에게도 행운이었지요. 그 뒤 안기부 기관원들이 옷까지 벗었잖아요.

서: <하루소식>의 일간지 등록과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야겠네요.

류: 2천호에 그 에피소드가 실려 있는데 웃기는 얘기죠. 당시 공보처가 <인권하루소식>이 분명히 일간지인데 정기간행물등록법 규정을 어기고 있으니 정식으로 일간지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보내온 거죠. 우리는 물론 등록할 수가 없지요. 윤전기도 없고 발행인인 선생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여서 완전 결격사유가 되니까요. 선생님이 공보처에 전화 걸고 한바탕 싸운 후 공문을 보내고 무시하기로 했었지요. 우리는 윤전기가 없어서 등록할 수도 없고, 정기간행물등록법 자체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니까 등록요청을 따를 의사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 쪽에서도 입을 다물어 버리대요. 공권력의 권위만 땅에 떨어지는 거죠.

서: 우리는 그때 공보처에서 계속 압박해오고 귀찮게 굴면 노트북 컴퓨터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인권하루소식> 만들자고 이야기했었지요. 노트북 컴퓨터와 전화, 그리고 팩스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배짱이었어요.

류: 뭐 팩스야 어디서든 보낼 수 있으니까.

염: 하루소식 독자 중에 형사나 기관원들이 많았지요. 각종 기관의 정보과에서 꽤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인권하루소식>이 각종 운동권 정보의 집합체니까... 그 놈들이야 매일 상부에 정보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상부에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 안기부의 서준식 선생 담당자가 <하루소식>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안기부래요. '못 보내 준다' 그랬더니 '대표 바꿔달라'고 그래서 '니가 뭐래 바꿔달라는 거냐' 했더니 '왜 니가 나서서 막느냐' 그러더라구. '너 그럼 안기부 부장 바꿔봐' 그랬더니 못 바꾼다는 거야. '너는 못 바꾸면서 나한테 바꾸라고 그러냐. 너도 못 바꾸면 나도 못 바꾼다.' 그랬더니 이게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후 이상한 회사 이름으로 구독신청이 들어왔지요. 전혀 관계가 있을 상 싶지 않은 무슨무슨 실업, 무슨무슨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말예요. 실제로 무슨 회사에서 받고 넘겨주는 경우도 있겠고, 회사 이름을 도용하고 실상은 기관 팩스로 받았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런 회사 이름으로 받는 인간들은 수상할 정도로 구독료 너무 잘 내. (모두 웃음) 또 보통 독자들은 아침에 <하루소식>이 안 들어오면 대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만인데 수상한 독자들은 안 들어가지만 하면 금방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지요. 어떤 인권운동가들보다 정보과 형사들이 정말로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읽었지요.

류: 해병대 전우회도 독자였는데 이런 거 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누가 신청해달라고 부탁했나?

한국의 인권운동가 20여명은 1993년 6월 비엔나세계인권회의에 참석한다. 비엔나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인권운동은 '국제화'를 실감하고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알카티리 씨를 초청하기에 이른다. 당시 천주교 운동진영에서 국제연대를 모색하던 이대훈, 이성훈, 장소영 등 국제연대활동가들이 인권운동사랑방에 결합한다.

염: 비엔나 얘기해야지.

서: 비엔나세계인권대회를 안 것은 1993년 2월인가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노태훈이가 적극적이었고 우리도 점점 진지하게 생각했지요. 그 과정에서 비엔나대회 참가 준비를 위한 정기모임 같은 걸 천정배, 조용환 같은 사람들이 제안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단체에서는 거기 노태훈을 실무자로 보낸 거고... 그런데 비엔나는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단체 뿐 아니라 한국의 인권운동이라는 게 처음으로 국제인권에 눈을 뜬 거고, 정확하게는 눈은 그 이전에 뒀는데 비엔나대회 참가를 계기로 국제화를 실감한 거지요. 비엔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단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면 이대훈 씨를 비롯한 국제연대 사업에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 친구들을 알게 됐다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다 천주교 쪽에 연고가 있는 친구들이었고, 국제연대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국제연대'의 내용을 못 잡고 있었던 거지요. 말하자면 물 없는 물고기였다고나 할까... 비엔나대회는 이 친구들의 '국제연대'에 '인권'이라는 내용을 부여했던 거고, 사랑방에도 국제연대 마인드를 제공하면서 나중에 인권운동사랑방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밀월은 깨졌지만 그래도 이 결합은 사랑방이 새로운 단계로 가는데 중요한 계기였던 거지요.

류: 막연하게 운동의 테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화두가 괜찮다는 걸 느꼈던 계기 같아요. 사랑방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인권이라는 것을 화두로 잡은 것 같고...

박: 나같은 경우 공대위에 들어갔지만 회의도 잘 만나가고, 참가하는 목적은 의문사, 고문처럼 한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을 국제대회에서 알리고 외국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려고 간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우리나라 의문사는 잼도 안되더라구. 나는 그 때 처음으로 동성애자 인권운동 같은 걸 보았어요. 문화적인 충격이었지요. 우리는 회의하면 어른들이 품잡고 있는 게 보통인데 다른 나라 인권운동가들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연설하고, 젊은 활동가들이 주종이야. 참 내 경우엔 문화적 충격이 컸어요.

서: 비엔나대회가 원래 정부간 회의인데 민간단체들이 모여 장터를 만드는 거지요. 그런 속에서 배운 것, 새롭게 본 것,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나도 그 때 '동티모르'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어.

류: 국제연대는 언제나 우리 사회 일부단체의 독점물이었잖아요. 그게 비엔나를 계기

로 모든 운동에 공유되는 것으로 퍼졌지요. 유럽에도 동포 있는데 지역마다 한 명이 있으면 혼자 라인으로 선을 갖고 있으면서 정보, 재정을 독점하는 게 국제운동 라인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공부할 필요성도 느꼈고, 우리 문제 호소하고 도움 얻는 것만이 국제연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얻었지. 해야될 학습을 그냥 한꺼번에 한 순간에 여러 가지로 충격적으로 받았지.

염: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권 분야 기사는 언제나 <인권하루소식>의 장점이었고, 국내 신문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는 조건에서 우리가 내는 국제인권 기사마다 다 '특종'이었지요. 인권하루소식의 특종은 70~80% 이상은 국제소식일거예요. 예를 들어 93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실을 수 있었어요.

류: 따지고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도 비엔나의 과정에서 처음 들었던 거야.

1994년

1994년 6월 사회권규약 1차 민간보고서 제출
8월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 창립, 인권센터로 결합
인권자료실 업무 착수

1994년 8월 인권운동사랑방은 「참여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와 함께 참여연대를 창립한다. 또한 이때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자료실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참여연대 내 인권센터로 결합한 인권운동사랑방은 1995년 1월 참여연대에서 나온다. 시민운동이라는 체제 내 운동의 틀거리 속에서는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6개월만에 참여연대와 분리한 것이다.

염: 비엔나 대회 참가 후에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요. 그래서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알카티리도 오게 되고, 성훈이형이 호주의 민중 외교훈련 가고, 장소영은 남아공 선거감시 가고, 대훈이형은 뉴욕가고, 94년은 국제인권연대 관련해서 그야말로 활동이 많아졌고.

류: 국제연대팀 얼굴 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염: 93년 12월 24일 이대훈, 이성훈, 장소영, 김은영 등등 결합해서 10여명이 일했지요. 여기 보다시피 94년 7월 월급 지급표를 보면, 그런데 내가 싸인을 했어. 내가 이를 결석한 거까지 적어 뒀네요.

류: 거기 서류상에 있는 활동비 같은 건 실제로 지급할 수 없었고 선배들은 다 자동 반납 했어요. 그 월급은 정해 놓은 목표였지. 나 같은 사람 차비 5만원만 받았고 여기 적혀 있는 것 다 안 받았어요. 보선이형 생활비 없어서 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받았어. 대훈이 형은 서점에서 먹고살고, 성훈이 형은 외국 나가서 알아서 먹고살고...

최: 10명 가까이 되는 활동가들이 일하고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규모이네요.

염: 참여연대가 창립되면서 거기에 합류했던 문제를 얘기할까요.

류: 태훈이 형이 회의에 참석해 돌아와서 참여연대에 합치는 일에 동의를 구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은 반대였지요. 우리는 모르겠다고 했고, 그 문제는 선배님들 판단하라고 했지요. 태훈이 형이 여기 안 끼면 우리 망한다는 식으로 설득했어요.

염: 망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물결이다 이런 식이지.

류: 법조인, 활동가, 학자가 결합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거다. 원래 우리가 구상한 건데 여기에 안 끼는 건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고..

염: 이대훈은 찬성파였던 것 같아요.

서: 그저 찬성이 아니라 적극적 찬성이었지요. 우리 밤새도록 회의한 끝에 아침에 표결하면서 내가 유일하게 반대한 걸로 기억하는데... 참여연대의 일부분으로서 인권운동의 정체성 지킬 수 있는가라든가 참여연대가 변혁운동이라기보다 체제 내 운동이 아니냐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논의됐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이대훈과 노태훈의 주장에 밀린 거였지요.

염: 나는 활동가 영역이 보장 안되면 합칠 수 없다고 했어요.

서: 참여연대, 그 때는 '참여연대'라는 이름도 없었지만, 발기인 대회가 있었는데 참석자가 30명 정도 됐었지요. 바로 뒤에 배금자, 유팔무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때 내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사랑방이 이 새로운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명칭에 인권을 넣어야 한다. 참여연대 창립 인자 가운데 지금까지 활동을 해온 단위가 우리밖에 없었는데, 우린 계속 인권운동을 할 사람들이고 참여연대 틀 안에서 인권운동을 할거다. 인권이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그리고 단체 명칭에 시민이라는 말을 넣지 말자는 주장도 했고요. '시민'을 강조하는 경실련의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는 건 반대다.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민주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민민운동 덕분인데, 민민운동을 짓밟고 민민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커나가는 것은 반 운동적이다. 이런 주장이 당시 발기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정식 창립이 임박하면서 야금야금 '시민'을 강조하더니 결국 이름을 '참여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로 해버리더라고요. 더 나중에 우리가 탈퇴한 후로는 아예 '인권'도 뺐잖아요.

류: 내부 논의는 그 때 들어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우리 인권운동사랑방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참여연대 내 인권센터로 할 것인가 등의 논의를 했어요.

서: 내가 박원순, 조희연 같은 사람들로부터 인권센터를 그대로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는 약속을 받았었어요. 창립 직전에 합류했던 어른들이 명칭에 '시민'이라는 말을 넣으라고 요구했다고 들어요. 결국 발기인대회에서의 결정이 아무런 공식 절차 없이 뒤집혔던 거지요.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안 좋았어요. 그 다음 문제는 참여연대가 출범하면서 자꾸만 체제 내 운동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였어요. '시민운동'이란 게 과연 변혁운동과 어떤 관계에 서느냐 하는 문제에 누

구도 시원스런 답을 주지 않았던 거지요. 그 다음 문제가 재정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참여연대는 창립 준비과정부터 경실련의 악한 선례를 따라가지 말자는 합의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문어발식' 혹은 '백화점식' 운동이었어요. 참여연대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안 한다고 결의를 했거든. 그런데 창립 후 몇 달도 안 되고 참여연대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였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세상의 이목을 끌고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서 터뜨리고 저기서 터뜨리고 계속 화려한 사업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초기에 박원순 변호사가 거의 혼자 돈 모으고 다녔는데 참 보기에 안쓰러웠지요. 박 변호사 얼굴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왜 인권센터는 앉아서만 일하느냐 왜 터뜨리지 않느냐 이런 압박이 은근히 들어오는 거였어요. 우리 사랑방 초기부터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인권자료실 구축이었는데, 이런 눈에 띄지 않고 회임기간이 긴 사업을 눈감아줄 만큼 초기 참여연대에는 여유가 없었던 거라고 해석해야 할까... 또 활동가의 정체성문제가 있었지요. 참여연대라는 구상 자체가 지식인들이 마음대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놀 수 있는 장을 펼쳐주는 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장을 만들고 유지하고 정리해주는 역할이 실무자의 역할이라면 그건 애초에 활동가가 중심이려야 된다는 우리의 구상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거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갈수록 못 견디게 고통스러운 압박이 됐던 거지요. 참여연대에 합류할 것을 그렇게 주장했던 노태훈 마저도 그쯤 되니까 나 보고 자꾸만 나가자고 주장했는데, 그의 생각이 진짜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염: 참여연대 창립 4개월만에 탈퇴해서 막막했지만 희망은 있었을 것 같아요. 서 선생님이 또 사무실 보러 거리를 헤매시고 새로운 보금자리 갈월동 시대가 시작하는데, 싸다고 잡은 건물이 약간 기울고 위태위태한 데다가 바로 뒤편에 전철 1호선이 지나가 건물이 흔들리기까지 해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용케 2년이나 버티었지요. 자, 이번에는 자료실 얘기합시다.

류: 창립 초기부터 자료실 해야한다, 그 구상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 서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거였어. 94년 말복 날 옥상에서 앵글을 하루종일 짜서 여섯 개 만들었지요. 거의 초죽음이 됐는데 용산 5층 사무실 벽에 가지런히 놓고 국제연대 팀들이 가져온 자료들을 꽂아 보니까 그게 한 칸도 안 찼어요.

염: 하루소식 유인물, 선생님 개인자료 다 해도 서가 하나도 안차.

류: 어쨌든 그렇게 만든 앵글을 '자료실'로 명명하고 시작했지요. 잘해보자. 그게 자료실의 출발이었지. 그 다음부터는 담당자들이 신문스크랩 하고 국회도서관 자료 찾아다니면서 자료조사하고 그랬지요.

서: 내가 민가협, 전국연합에서 일하면서 모은 자료, 내 개인 책들, 강기훈 사건 활동하면서 모은 자료, 장기수 화일 등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박: 용산 있을 때 가운데 사무국이 있고 뺨 둘러서 자료실이 있었어요. 자료를 이고 사는 격이었지요. 참여연대랑 합치고 나서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앵글 또 만들었고... 낙원동 시절에는 분류체계가 정말 단순했잖아요. 용산에선 내가 분류체계를 영성하게나마 만들었지요.

박: 그 때까지는 <하루소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어요.

서: 우리가 돈이 많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특색이라는 게 <인권하루소식> 취재하면서 들어온 이른바 바닥자료들을 착실하게 축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료야말로 대학도서관이나 연구자들에게겐 없어요. 이걸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이런 게 잘 안 돼. 팜플렛 유인물 다 기사 쓰고 나서 결국 자료실에 축적하는 시스템이 지금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염: 의문사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의문사위원회에 없는 자료가 <하루소식>에 있어요.

서: 하루소식 기사를 쓸 때 참고한 원자료들만 모아놓아도 대단한 거거든. 저번에 최갑수 교수가 자료실 구경하면서 단행본에는 도무지 관심 없는 사람이 자료 박스들을 보면서 '와!' 그러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런 거야말로 5~6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귀중한 사료가 된다 굉장히 기대가 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은아 씨가 시스템에 신경을 좀 써봐요. 원자료를 계속 축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1995년

- 1995년 1월 참여연대로부터 분리하여, 갈월동으로 이사
인권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시작
- 3월 어린이·청소년권리연대회의 결성
인권자료실을 '인권정보자료실'로 명명
서준식 미국 워싱턴 주립대 객원연구원으로 출국
- 7월 아동권리협약 1차 민간보고서 제출
- 11월 류은숙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참가 및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 인권교육 연수차 출국
- 12월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 개통. 검색 기능 제공.
서준식 일시 귀국

1995년 1월 갈월동 사무실로 이사한 후 심기일전하고 이때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본격적으로 인권교육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인권교육의 황무지에 깃발을 꽂기 시작한다. 3월 어린이·청소년권리연대를 결성하고, 7월 유엔에 아동권리협약 1차 민간단체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서준식, 류은숙은 각각 미국과 영국으로 연수차 출국한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이 통신서비스를 통해 네티즌에게도 읽히는 소식지가 되었으며 점차 팩스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염: 95년 아동권, 인권교육으로 갑시다. 당시 아동권 사업과 인권교육 사업을 심화시켰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류: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등학생에게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던 '샘' 사건을 접하면서 사랑방 활동가들이 그 아이들하고 교류하게 됐고 고등학생들의 인권을 고민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이 되었었지요.

류: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인권토론회를 비밀리에 했지요. 왜 비밀이나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처벌받을까봐. 그런데 70명이나 와서 자기네끼리 4시간에 걸친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 현상에 힘입어 청소년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SOS 긴급 전화 연락망 같은 논의도 있었는데 본격화되지 않다가, 94년 겨울에 외국의 'NGO GROUP FOR the CRC' 라는 아동권 단체로부터 하나의 소포를 받았어요. 거기에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 보고서가 있었죠.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동권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요. 95년 들어서 제가 인권교육 맡으면서 단체들한테 아동권리협약이 중요하다고 설득하고 다니면서 3월엔 '어린이·청소년권리 연대'를 만들죠. 7월엔 유엔에 민간단체 보고서 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동권에 대한 교육사업을 계속했어요. 그 때 <중앙일보>에 기획기사가 크게 나왔는데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였지요. 그게 우리 언론이 다룬 최초의 아동권 기사였어요. 기자들도 이제 아이들의 인권에 관심을 돌리고 그런 기획기사가 나오면서 점점 관심이 높아졌지요. 그러다가 교육사업에서 더 얘기하다보니까 인권교육은 누구한테나 필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 속에서 아동권 사업하고 인권교육 사업이 쌍두마차처럼 같이 병행되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유엔에 보고서도 내고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말이 국내에서도 화두가 된 원년이 95년이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활동가에 대한 인권교육을 비교적 많이 했잖아요. 전문가 세미나 13회를 마치고 95년에는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공개강좌를 6개월 단위로 열었어요. 1기, 2기해서. 그것만 딱세게 들었으면 제대로 된 인권학교가 되었을텐데... 커리가 좋았어요. 그런 거 하는 한편에 활동가만이 아니라 일반사람을 만나자 해서 대학생 인권교육을 했어요. 95년 여름에 딱 일 안하고 6명 교육하는 데에만 매달렸어요. 사랑방이 대단했던 게 바쁘고 일손 없는데도 고작 여섯 명의 실습생을 교육시키는 데에만 한 활동가의 역량을 한 달 동안 내내 투입했던 거예요. 숭실대 애들이랑 왕기랑... 이 실습생 교육을 시작으로 겨울에 사회연수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꿈사' 하는 박신혜 씨, 그리고 배경내 씨도 그 때 왔어요. 그런 식으로 대학생에게 인권교육을 했고, 95년 9월에 처음으로 해외 물을 먹었지요. 방콕에서 있던 인권교육 워크샵이었지요. 인권교육이란 뭔가 맛을 보고 온 거지요. 거기서 배운 걸 처음 실행한 건 배경내 팀이었어요. 아디다스 방법론 이용해서 교육했을 때 교육학과에서 온 애들 참 좋아했었어요.

염: 활동→토론→정보의 투입→심화→분석→종합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참여자 중심의 인권교육 방법론이죠. 이걸 줄여서 아디다스 인권교육 방법론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동권 보고서를 7월에 완성하고 11월에는 제네바에 가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지요?

류: 그 후 나는 영국에 가서 앰네스티 영국지부에서 인권교육 연수를 본격적으로 받았지요.

염: 박래군 씨는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을 받았지요? 그 전에는 날라리로 지내다가 인권활동가로 처음으로 교육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때 형법, 형사소송법 등등 법에 대한 강의 있었고, 여성폭력에 대한 것, 아동권, 사회권... 할 거 다 했지요. 동성애자 문제도 하고, 이주노동자 문제도 하고, 동성애자 인권을 교육받는데 동성애 때문에 군대를 안가는 친구가 있었지요. 원래적 의미의 병역거부자였지요.

박: 지금 자세한 건 기억 안 나지만 참 유익했다는 생각 들어요.

류: 공개강좌 하면서 당시 이슈화되기 이전이었던 인권사안을 한번 썩 다 짚은 거예요. 동성애자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 등등.

박: 중요한 국제규약들은 다 보았지요.

염: 갈월동 사무실에서는 소음도 심하고 햇볕도 못 보고 그랬지만. 공간이 비교적 넓었습니다. 선생님이 공개강좌에 오는 사람들에게 낙원동에서처럼 카레라이스를 대규모로 대접하곤 했지요. 어쩔 때에는 오전 10시부터 끓이기 시작해서 강의 듣는데 냄새가 진동했던 기억이 나요.

류: 당시 공개강좌 들으러오던 활동가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했었어요. '양군모' 운동하던 사람. 그 사람이 공개강좌 열심히 나오는데 교통사고로 죽어서 속상했어요. 빠짐 없는 참석자였지요.

박: 강북성심병원 영안실에 갔던 기억이 나.

최: 95년에 3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새로 들어온 강기훈 씨가 자료실을 맡으면서 그 때 또다시 자료 분류체계를 나름대로 짰어요.

류: 분류체계 진짜 자주 바뀌었지.

박: 앵글도 또 짚고...

최: 95년도부터 <하루소식>을 통신서비스하기 시작했죠. 통신서비스를 이용해서 최초로 <인권하루소식>이 통신공간에 진출했던 거예요.

류: 그 때쯤 인권운동사랑방이 스포츠 신문에 최초로 나왔다는 거야. 스포츠신문이 왜 인권소식을 다룰까 너무 신기했었거든. 인권분야에서 처음으로 통신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전화 많이 왔었어요. 사랑방, 통신공간에 일찍도 진출했지요.

1996, 1997년

- 1996년 4월 서준식 미국으로 출국
- 5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개통, 인권하루소식 인터넷으로 제공
- 9월 서준식 귀국, <인권하루소식> 민주언론상 특별상 수상
- 11월 제1회 인권영화제 개최
- 1997년 9월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
- 11월 서준식 구속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식 개최
- 1998년 2월 서준식 보석으로 출소

1996년 7월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하루소식 창간 3주년 행사로 제1회 인권영화제를 기획

한다. 인권영화제는 사전 검열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끌어 올렸으며, 인권의식을 영화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시켰다. 제1회 인권영화제 때도 상영장 선정 문제로 고생을 했는데 홍익대에서 치러진 1997년 제2회 인권영화제는 일치감치 가시밭 길을 예고했다. 상영장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 및 침탈, 서준식 구속 등... '살아남기를 바란다' 라는 1회 인권영화제 관객이 남긴 말이 가슴에 사무치는 사건들이 이어진다.

염: 이제 96년 인권영화제 얘기 시작하죠. 기획이나 아이디어는 누가?

서: 물론 나지요. 과거 참신하다는 사랑방 사업 치고 내가 아이디어 안 낸 게 뭘지 따져보라고.

박: <인권하루소식> 700호 기념으로 심포지움이라도 할까 하다가 선생님이 심포지움 해봤자 내용이 제대로 나오냐, 어떤 놈 불러다 듣냐 재미없다. 그러면서 영화제 한번 해보자고 하셨지요.

서: 95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잠깐 살 때 아주아주 후진 극장이 있었어요. 고작 50석 정도의 냄새 나는 우중충한 극장이었는데 거기서 인권영화제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잔인한 경제 제재 같은 것을 소재로 한 다큐도 있었고,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배경으로 한 인상적인 드라마도 있었어요. 애초에 그만한 규모의 작은 영화제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이 엉뚱하게 발전했지요.

류: 영국에서 팩스로 명령받고 기가 막혔어요. 인권영화제 할 거니까 영화 알아봐라. 속상했지요. 1년 내내 영화 한편도 안보는 인간들이... 이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했지요. 영화제, 그럴듯하지만 영화라는 게 그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 극장에 갔다 하면 잠만 자는 인간들, 비디오 빌려봐도 5분 이상 안보잖아요. 나는 그 때 팩스 받고 분개했었어요. 어떻게 나더러 이걸 하라는 거야. 공부할 것도 많은데. 짜증났었지요.

박: 그럼에도 조직의 명령이라 어기지는 못했지.

류: 엠네스티 가서 비디오 룸 아침부터 한달 예약해서 비디오 다 봤잖아.

서: 그 때 95년 3월에 미국에 나갔다가, 96년 초에 돌아오잖아요? 96년 봄에 감옥 인권 매뉴얼 만든다고 원고를 쓰다가 완성을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는 데, 왜 가느냐면 인권영화제 준비하러 간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올 생각도 했는데 가족은 결국 다음해 초에 데리고 오게 되지요. 여름에 뉴욕 링컨센터에서 하는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영화제 보러 가고, 뉴욕에 산재하는 배급사 돌아다니면서 골방에서 조그만 모니터로 수많은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 좋은 걸 많이 골랐지요. 그런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영화제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로 초청돼서 가 있던 박광수 감독, 문성근 씨를 만나게 되어 얘기를 나누니까 마침 부산에서도 국제영화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인권영화제 한다니까 웃으면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 하지 말라고,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나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는 '사전심의'라는 모든 영상물에 대한 검열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영상물도 상영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난감하더라고요. 심의를 거쳐야하나 말아야하나? 가볍게 생각했지요. '영 어려우면 심의를 거치지 뭐.' 그런데 국내에 돌아오니 전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영화인들은 '공대위'까지 만들고 심의에 반대하고 있었고, 인권단체가 심의를 받으면 완전히 쪽 팔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사전심의를 거부하기로 하고 고난의 길에 나서게 된 거지요. 표현에 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과 영화를 통한 인권교육이 같이 가는 기막힌 사업이 된 거예요.

염: 영화적 측면에서는 90년대 영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인권적 측면에서는 반공 동원체제의 잔재에 치명상을 입힘으로써 새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또 인권하루소식 3주년이자 700호를 기념해서 뭐 할거나 고민하다 겸사 겸사 해서 인권영화제 되는 거고, 선생님이 해외 물을 먹으면서 눈이 트여진 덕분이지요.

류: 선생님이 영국에서 귀국한 나를 딱 보더니 너 인권영화제 해야 한다. 그러시잖아요. 인권영화제 스태프는 우리 두 사람이 다였어요. 포스터, 버튼, 자료집, 번역, 자막 넣기, 섭외... 둘이서 다 했지요.

염: 그 때에는 <시네21>이나 <키노>도 후원하고 영화관에서 내노라하는 진보적 영화인들이 결집했었지요. 인권단체 등에 업고 표현의 자유 투쟁할 수 있고, 잘못되면 서준식이 감옥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서: 김동원이 옳다구나 했겠지? 인권영화제 덕분에 배고프지만 멋지고 좋은 영화인들을 여럿 만날 수가 있었지요. 그래도 참 행복했지요.

류: 다들 엄청 고생했어요. 장소 구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염: 이화여대로 어떻게 장소가 결정났지요?

류: 모든 대학들이 한총련 사태(1996년 8월 '8.15 범민족대회' 개최를 불허하는 경찰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 과정에서 연세대 몇몇 건물에 여러날 동안 갇히다시피 했던 대학생들은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된다. 이를 계기로 대학들은 각종 집회 등 외부행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로 96년에 호되게 맞아서 외부행사가 안 돼. 외부극장은 심의필증이 있어야 되고, 동숭아트센터에서 예술영화 개관하는데 개관행사 비슷하게 인권영화제 유치하려고 대관료 없이 와서 하라고 했는데 한 시간만에 물거품 되었지요. '심의필증 안 받으신다면서요? 없었던 일로 하죠.' 일반 상영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학은 한총련 회오리를 받아서 어렵고... 그나마 이대 총학은 한총련 주류가 아니어서 한총련 회오리의 타격을 벗어난 학교였고 전통적으로 학생처하고 총학생회 관계가 상식적이고 대화가 통하는 학교였던 거지요.

서: 이대 학생처장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총학생회장한테 속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총학생회장이 영화제 행사를 총학에서 한다고 거짓말해서 허가를 받아 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학생처장이란 사람이 나한테 펄펄 뛰는거야. 내가 속였다고. 나는 죄인처럼 다소곳이 앉아서... 정말 애먹었어요.

류: 학교측에서는 암묵적으로는 인정해도 공식 불허였지요. 그래서 상영 당일 날 비디오 테이프 싸 갖고 가는데 문 열었을까 말았을까 조마조마했지요. 학교 측에서 영화

제 한다는 소문 못 내게 해서 개막식 행사도 밖에서 못하고 상영장 안에서 했어요.

서: 서대문구청에서 경고장을 이대 쪽에 보내서 그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 만나러 갔지요. 서대문구청장이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민주사회인데'로 일관해요. 그래서 구청장 실에서 나와서 실무책임자 붙잡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어디서 스톱하라고 명령했는지 잘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류: 그런데 대박이 터진 거지.

서: 이대 법정대 강당이 7백석인데 천 몇 백 명 관객이 물밀듯 몰려왔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냥 간 사람도 수백 명이었어요. 불법 영화제인데 방송사들은 뽕뽕 뉴스 터뜨리지, 디지털조선까지 나를 인터뷰하러 찾아오고... 누구도 영화상영 막을 수 없었지요.

류: 우리가 작품 섭의를 영화제 직전까지 해서 영화제 중간에 자막을 넣었어요. 내가 제일 기억 남는 게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 그거가 영화 상영시간도 길고 말도 엄청 많은데 자원봉사자에게 번역해 달라고 맡겼더니 3분의 1만 번역한 거예요. 그걸 자막실에 들어가서야 안 거야. 영화는 나오는데 자막이 없어요. 돌아가시겠더라고요. 큰일이야. 바로 틀어야 하는데. 그래서 재미동포 두 사람을 김명준 씨가 긴급하게 수배했지요. 이 두 사람이 영어만 해요. 쭈르륵 앉아서 재미동포들이 영어로 받아 쓰면 그 영어를 내가 한글로 번역해. 그러면 김명준 씨가 제각 제각 자막을 넣는 거지요. 번역, 자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재미동포들은 갔고 나한테는 그들이 남기고 간 영문이 쌓여있지요. 사람이 그 시간 되면 지치잖아요. 5분만 자고 싶은데 시간계산이 안나와요. 잠시도 쉴 수가 없어. 하고 하다가 아침 9시가 되어서 자막 넣는 김명준 씨한테 번역 다한 거 주고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내 손을 떠난 거지요. 영화는 정오 12시에 틀기로 되어있는데 12시에 학관 앞에서 기다리면서 어떻게나 조마조마했던지. 상영장에 사람들은 꽉 차있고 영화는 안 오고... 불안해 죽겠는데 김명준 씨가 12시 정각에 뛰어 들어오지 않겠어요! 내가 5분만 엎드려 잤어도 시간에 맞추지 못했을 거예요.

또 2회 영화제에서 했던 '쇼아' 9시간 30분 짜리 대작인데, 푸른영상 상업 씨랑 같이 했어요. 언어가 6~7 가지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번역해 놓은 것을 넣을 수가 없어. 테이프는 8개. 하나는 보고 외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시간이 안나와요. 그냥 넣는 거야. 나 독일어 할 줄 알아, 불어할 줄 알고, 히브리어 할 줄 안다는 착각 속에서 그냥

넣는 거야.

2회 영화제 때 홍대가 원천봉쇄된다는 정보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새의 노래', 바로 그 다음에 '쇼아' 틀어야 하는데 1, 2회만 자막을 넣고 나머지는 못 넣었어요. 김동원 감독은 내일 원봉된다고 태평했지요. 난 끝까지 넣어야 하는데. 김동원 감독은 집에 자리 가고... 옆친데 덮친 격이라고 새벽 3-4시에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었어요. 김동원 감독이 전화로 '정전되었는데 어떡하냐. 좀 기다려봐도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자.' 정말 태평이야. 그래서 결국 못 넣었어요. 그런데 정말 원천봉쇄 되었잖았겠어요? 만약 원봉 안되고 틀었으면 상영사고 났지요. 영화제에는 자막에 얽힌 뒷이야기가 많지요. '호남호녀' 자막 넣을 때도 중국어라 엄청 불안했지요.

염: 자막 번역해도 그 사람 말할 때, 표정이랑 맞아야하잖아. 맞는 거 같은데 전혀 모르고 집어넣은 거네요?

서: 천천히 말할 때는 알고 넣었지요.

류: 영어권은 알아들으면서 넣었지만, 비영어권은 마음으로 넣었다고 보면 돼. 잘 맞아.

박: 제2회 인권영화제는 참 할 얘기가 많아요.

류: 발전기부터 해서 화장실 바닥 맨홀뚜껑 열어서 기자재 숨겨놓고. 밤에 들어와서 경찰이 가져 갈까봐. 자판기 위에 지붕하고 사이 있으면 거기다 비디오 테크 집어넣고, 공사장 맨홀뚜껑에다가 집어넣고.

박: 매일 장소를 바꿔가면서 발전기 숨기고 테이프 숨기면서 하다보니 상영사고도 심심찮게 있었지요. 그 날 상영이 끝나고 나면 경찰들 줄줄 쫓아오고. 테이프 내놓으라고 그러고. 마포경찰서랑 실랑이도 하고. 진짜 골 때린 건 새벽 1시에 경찰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는 바깥에서 술 먹고 오다가 전봇대에 부딪쳐서 피범벅이 된 거였지요.(모두 웃음)

류: 술 먹고 피범벅된 거 집에 가서 부인한테 혼 날 테니까 경찰하고 싸우다 그랬다

고 말하라고 그랬지요.

박: 홍대 총학생회 권한대행하던 애가 그 때 잡혀갔지.

염: 구속됐어요?

박: 구속되었지. 그러다 반성문 쓰고 나왔지. 우리는 영화제 마지막까지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차기 서총련 대오를 구성하는 것 때문에 홍익대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96년에 왕창 한총련이 깨지고 약화되는 상황에서 말예요. 우리는 학생들 피해 안 주려고 결국 하루 일찍 종영했지요.

류: 우리는 계속하고 싶었는데

서: 그 때 경찰이 학생들한테 '빠터제'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경찰이 학생들에게 소환장인가를 보내놓고 영화제 일찍 끝나게 하면 학생들을 안 잡아가겠다고 교환조건을 내놓은 거였지요. 경찰 참 비열하지요.

류: 그 때 그런 조건으로 경찰과 타협했던 학생운동의 비겁함에 가슴 아팠어요.

염: 서준식 선생님 구속까지 영화제 얘기 마무리짓죠.

류: 구속되는 날 나랑 래군이 형이랑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안 짜려고 옆에 옥스퍼드 건물 2층 다방에 앉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찰 왔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사무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미 끌려갔고 압수수색 당하고 있잖아요.(1997년 11월 4일 서준식 씨는 서울시경 보안수사2대 소속 형사들에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개네가 선생님 짐이랑 엄청 많이 가져갔지요. 비디오 테이프, 노트북 컴퓨터, 디스켓... 잊을 수 없는 날이죠. 1천호 발간기념 바로 전날이었으니까.

서: 내가 <하루소식> 1면에 쓸 1천호 기념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떡대 같은 놈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녁 5시쯤인가? 저녁 밥 먹기 전이었으니까. 장안동 대공분실로

직행했지요.

박: 영장 나오자마자 막 바로 온 거네요.

류: 우리를 늘 쫓아다니던 그 안기부 새끼도 선생님이 연행 당할 때 와 있었잖아요. 연세대 후배라고 알탕 먹자고 알랑거렸는데, 선생님 잡혀갈 때 와 있어서 진짜 재수 없는 놈이라고 했지요.

박: 다음 날의 1천호 기념행사가 자연스럽게 표현의 자유 탄압과 서준식 구속 규탄집회로 바뀌었던 거지요.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 주는 거야. 예약에 문제가 있었기도 했고 다른 행사가 없으면 열어주는데 선생님 잡혀가고 동대문 경찰서가 압력 넣으니까. 김동완 목사가 움직여서 애써주었지만 끝까지 안 열어 주더군요.

류: 사실 그 때 1천호 기념식에 온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 같은 날에 다른 곳에 큰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다 거기서 가기로 했는데 서준식이 구속되었다니까 거기를 땀 내고 이리로 온 거야. 원래 우리한테 안 오기로 했는데, 쟁쟁한 사람들 다 왔지요.

박: 그래서 곧장 대책위 꾸리고, 돈도 들어오고.

염: 자료 보니 3백여명 온 걸로 돼 있네요.

류: 엠네스티 아시아 지부장 다니엘스도 왔고, 원로급 변호사님들, 이상수 의원 비롯한 정치권... 바글바글했지요.

류: 전국적으로 레트헌트 상영회 해서 함께 보기 운동도 하고, 세계적으로 규탄성명서, 편지 많이 날아들었어요. 대체로 석방촉구편지라서 뜯어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심심해서 앉아서 그거 뜯어보기 시작했거든. 똑같은 편지니까 다 쌓아 놓는데 뜯다 보니까 중간쯤에서 백 달러 수표가 나왔잖아. 편지 안 뜯어보면 큰일날 뻔했지. 그 다음부터는 오는 거 다 뜯어봤어. 돈은 없었지만, 한국정부에서 양심수는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선생님 구속으로 양심수가 있다는 걸 선생님이 몸으로 증명한 거고, 그래서 <하루소식> 1000호 기념 1면 톱 기사가 '양심수는 있다'였어요.

류: 그런 계기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문제가 크게 조명을 받게 됐고 우리의 인권영화제가 인권단체의 조그만 행사가 아닌, 이제 세계적인 영화제가 된 거예요. 표현의 자유 운동 하는 세계 유수의 단체들은 자기들 신문에 우리 인권영화제를 대서특필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신문에 실렸었어요. 그 후에 암스테르담 국제영화제 담당자가 인권영화제 취재하고 바로 돌아갔지요. 이들의 출장 와서 취재하고 갔어. 그런 식으로 인권영화제가 크게 주목 받은 거예요. 세계 유수의 영화제가 된 셈이죠.

류: 감옥에 들어가서 몇 개월 안 있었는데.

서: 3개월 있었지요.

류: 기간은 짧았는데 그 안에서 소송을 한 세 개인이 제기하셨지요? 미결수한테 수인복 입기를 사실상 강요하는 문제랑, <하루소식>을 검열로 불허하는 문제, 법원 검찰청 구치감에서 대기 중에 수갑 채우는 문제. 이런 식으로 싸움거리를 계속 만드신 거예요. 나오는 날도 싸우셨잖아요. 보석으로 나온다고 해서 구치소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구치소 문은 닫히고 안나와. 사람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는데.

서: 구치소에서 일기 썼던 노트를 몰수하겠다는 거 때문에 싸웠지요. 안 주면 밖에 안나가겠다. 아쉬울 것 없다. 그냥 주저앉아버렸어. 나가보니까 마중 나온 사람 몇 사람 없더라구.

류: <한겨레> 기자가 인쇄심을 갖고 끝까지 있다가 사진 찍었지. 딴 사람들은 갔어.

염: 3회 영화제는 수월했나요?

서: 장소 얻기는 여전히 어려웠고, 작품섭외 자체는 어려울 거 없었지요.

류: 그 다음에는 지명도도 생기고 연출이 많이 형성됐지요. 노하우도 쌓이고요.

염: 그럼 이로써 1기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별첨> 인권운동사랑방의 재정 및 조직 운영의 원칙

- 1995년 3월 서준식 대표 출국을 계기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결성/사무국장제 신설
- 1996년 자문위원회 정리 시작
- 1998년 12월 독립군 정신 논의 마무리 - '사랑방원의 운동원칙 선언' 채택
- 1999년 8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식 해체/후원회원으로 재편
- 2001년 8월 27일 서준식 대표 사임/대표 권한대행 체제
- 2001년 11월 대표와 사무국장직 폐지
- '활동가 전원이 책임지는 구조' 결정
-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2년 임기 선출직인 집행조정장을 두되 대외적 대표성을 주지는 않기로 함.

사랑방원의 운동원칙 선언 ① (1998.12)

우리는 올 98년 한해동안 길고 어려운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운동방식을 지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각자가 진보운동과 인권운동을 이해하는 정도와 시각은 분명 다를 것이나, 이 같은 합의에는 사랑방이 지향해야 할 운동의 목표와 방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합의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함께 할 운동의 원칙을 하나씩 정해가고 실천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고민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아래의 합의는 자신에 대한 약속이자 서로에 대한 약속이며, 그 실천을 위해 조직적 노력과 동시에 개인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현재의 운동 풍토는 활동비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활동가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단체가 재정사업에 사활을 걸게 되고 운동 목적이나 독립성에 저해가 되는 성격의 돈의 유입과 사업의 확대를 양산하고 있다. 사랑방은 이러한 풍토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한다.

- 우리는 '활동비를 지급받는 상근활동가'로서 자신을 규정짓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운동을 자신의 삶의 과제이자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건 운동을 실

천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 자신을 위치 지우며, 그 정신과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 우리와 같은 의지를 가진 활동가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사랑방의 멤버십을 개방한다.

- 운동에서 나오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명망에 의존하는 삶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한다. 운동을 나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독립적'인 운동의 지속을 위해 어떤 고단함도 받아들인다.

-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재정사업을 전원이 고민하고 책임진다.

- 과도적으로,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속에서 기본적 활동비를 나눠 갖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적인 형태일 뿐이며 활동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된 생계수단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독립된 생계수단의 확보는 개인과 조직의 공동과제이며, 사랑방 사업의 연장선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조직운영방식의 핵심은 '활동가 중심주의'에 있다. 인권운동은 비리와 불평등과 패륜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는 꿈을 가진 진보운동의 한 분야여야 한다. 그런 인권운동의 골간은 어디까지나 용기와 헌신을 본분으로 삼는 활동가이어야 하며 활동가의 상상력과 에너지가 자유롭게 분출되는 인권운동만이 현실을 열어나가는 힘있는 운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가가 전문지식인의 심부름꾼으로 인식되는 운동은 활기를 잃은 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사랑방은 조직 운영은 고집스럽게 활동가 중심주의를 고집해왔다.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은 바 아니고, '우리만의 구멍가게를 넘어서 위계도 있고 전문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공장으로 가자'는 내부 의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진보적 인권운동에 대한 분명한 설득 없이 그저 좋은 일 한다는 식으로 사람을 끌어들이 자신과 뻘뻘함이 우리에게 없었고, 자칫 그 과정에서 모이게 될 세속의 힘, '돈'의 힘에 의존해서 조직을 키우게 될 것을 우려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적 인권운동'은 '지향일 뿐 구체적 실체를 내보일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과 돈을 끌어들이는 일은 활동가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래서 시작된 논의가 일명 '독립군 정신'에 대한 것이다. 95년 서준식 전 대표의 방미를 계기로 서 대표 부재중에 사랑방을 돌보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생겼다. 평소 사랑방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던 분들이었지만, 사랑방 활동가들은 '서로'에게가 아니

라 '윗 단위'에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그리고 서 대표가 회생적으로 담당해왔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는 주변 지인들을 '자문위원회'로 모았다. 명칭은 '자문위원'이지만 사실상 지인의 부탁에 어딘가 좋은 일 하는 단체에 기부하려는 뜻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월말마다 '사랑방'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회비 독촉 전화를 해야 하는 등 활동가에게 달갑지 않은 일들이 생겨났다. 활동가들은 특정 집단의 돈에 의존하는 운동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96년부터 의식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정리해나가기 시작한다. 95년에 1백여 명이 넘었던 자문위원은 96년에 시작된 정리 작업으로 사랑방의 운동을 이해하는 10-2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서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97년부터 사랑방은 본격적으로 '독립군 정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독립군'이란 말은 서준식 전 대표가 "일제시대 독립군들이 월급 받고 운동했겠냐"라고 한데서 비롯됐다. 활동비에 의존해서 활동가가 살아가고, 조직은 돈을 만들어야 하고, 돈이 되기 위한 사업을 해야하고, 돈에 맞춰 활동가의 수를 조절하는 고리를 끊어보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밤을 지새우는 토론이 2년 간 이어진다.

그 결과 98년 겨울, 전원 합의 속에 채택된 것이 '사랑방원의 운동원칙 선언'이다. 이 결정의 핵심은 자생력을 갖는 활동가가 되자는 것, 과도기적 조치로 나이·직급에 관계없이 3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되 이것이 0원이 되는 상태를 지향한다는 것, 상근활동가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운동, '자원활동가'에 중심을 두는 운동으로 나가자는 것,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므로 재정에 맞춰서 활동가를 뽑는 방식을 없애고 개방한다는 것 등이다.

독립군 정신에 대한 합의는 곧 활동가 전원이 사랑방의 운영주체라는 의미가 된다. 사실 사랑방의 상당 기간 동안 서준식 전 대표가 출혈적으로 운영을 책임진 바 있다. '개인이 고통스럽게 가져온 돈,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 지도 모르는 돈을 가지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돈으로 운동하는 건 운동가의 모습이 아니다'는 자각에서 '내 운동, 내 사업은 스스로 끌어간다'는 결의를 하게 됐지만 실행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나는 24시간을 운동만을 위해 살고 싶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삶을 포기했는데, 최소생계비도 바라면 안되는 것이냐'는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아르바이트에 지쳐서 사랑방 일을 하려 할 때는 기진맥진해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일로 생계를 도모해야 할지가 계속적인 고민이기도 하다.